



삼일회계법인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6 Mid-Year Update

2026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August 2026



민준선 대표
삼일PwC Deal 부문

들어가며

2026년 상반기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AI를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산업 재편이 가속화된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규모 '빌드(Buil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핵심 기술과 역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M&A를 적극 활용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글로벌 M&A 시장은 AI와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메가딜 증가에 힘입어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전략적 투자 수요 확대로 거래금액이 증가했으나, 자본이 성장성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자산에 집중되면서 산업 간 양극화는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도 AI 확산과 에너지 전환, 공급망 재편이 주요 투자 테마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Build와 M&A인 '바이(Buy)'를 병행하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추진되면서 전략산업 육성과 산업재편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자본 공급이 기대되고 있어, 향후 M&A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글로벌 및 국내 M&A 시장의 주요 흐름을 조망하고 하반기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PwC 고객과 독자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genda

Executive Summary	3
1. 2026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7
2. 2026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17
3. 산업별 M&A Trend 및 2026년 하반기 Outlook	27

본 보고서는 PwC Global의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6 mid-year outlook' 를 재구성하고, 삼일PwC경영연구원의 분석과 인사이트를 더해 작성하였습니다.



Executive Summary

01

2026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 **글로벌:**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10% 감소, 거래금액은 +42% 증가. AI 중심 메가딜¹ 확대로 거래금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중소형 딜 위축으로 시장 양극화 심화
- **국내:**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유사, 거래금액 +27%³ 증가. 전략적 대형 거래와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며 거래금액 회복

1. 거래금액 5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딜. 상세 내역은 11p 참조
2. 원/달러 환율: 1,482원 적용 (2026년 상반기 평균)
3. 원화 기준으로는 +32% 증가

자료: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글로벌

국내

시장 규모 (2026년 상반기 기준)

거래금액 2조 달러(한화 2,969조 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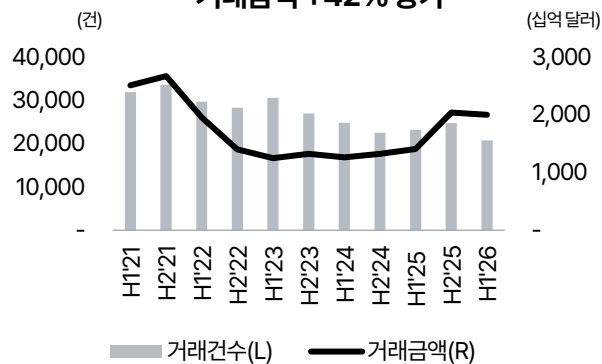
거래건수 20,835건

거래금액 260억 달러(한화 39조 원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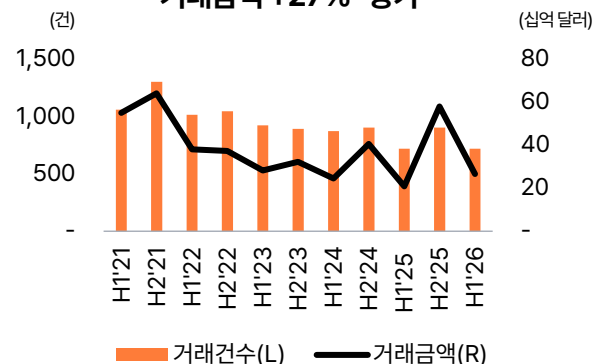
거래건수 718건

M&A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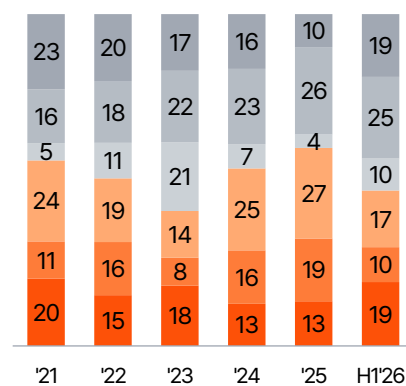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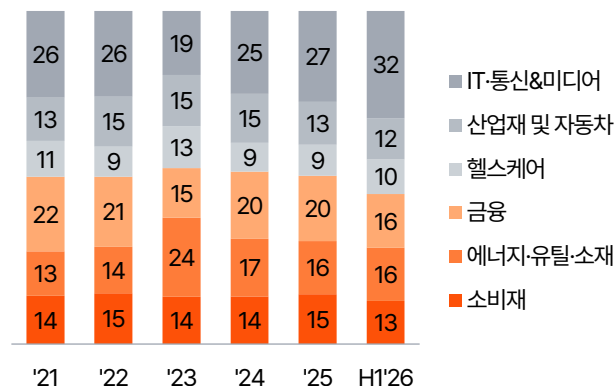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10% 감소
거래금액 +4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0% 증감
거래금액 +27%³ 증가



섹터 비중 (총 거래금액 대비, %)



02

2026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Macro 환경

자본 비용 부담 확대

글로벌

- 경기 둔화 우려,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불확실성으로 자본 공급 여건 악화

국내

- 금리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성장펀드(200조 원 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여건 유지

M&A 주요 테마

AI가 주도하는 산업 재편

AI 인프라 투자가 M&A 핵심 동인

- 2050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규모 누적 151조 달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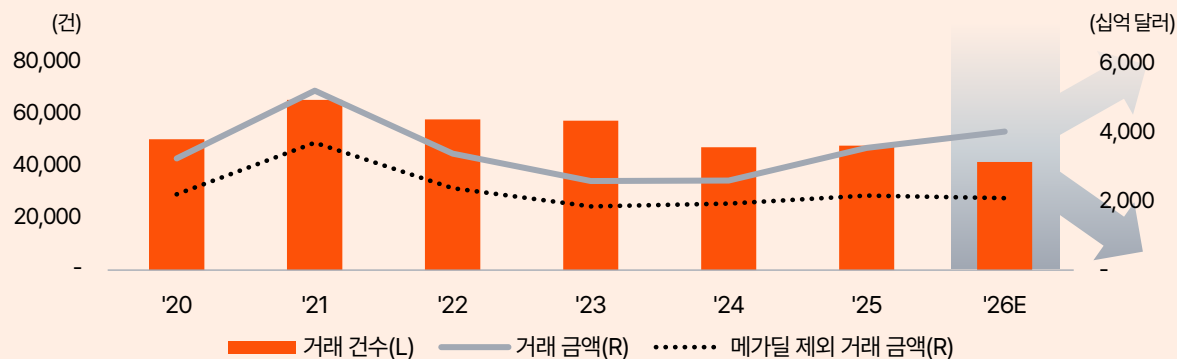
산업 간 성장성 격차 확대

- AI 수혜 산업으로 자본 집중
- 비수혜 사업의 포트폴리오 재편 가속

선별적 자본 배분 확대로 K-커브(양극화) 심화

AI·에너지·인프라 중심 메가딜에 힘입어 2026년 글로벌 M&A 금액은 4조 달러 전망 (2021년 이후 최대)

- 메가딜 비중이 전체 거래금액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되며 시장 집중도 심화
- 메가딜 제외 시 거래금액은 약 4% 감소해 중소형 거래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3

M&A 시장 참여자들을 위한 제언

1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거시경제·지정학·기술 변화 등 핵심 변수 모니터링
- 주요 변수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위기 대응 및 회복 탄력성(Resilience) 제고 방안 마련
- 복합 리스크를 반영한 자본 조달 및 투자 계획의 유연성 확보

2

AI 중심 산업 재편 속
경쟁우위 확보



- AI 시대 핵심 가치사슬 내 자사 포지션을 명확히 정의
- 산업 재편 과정에서 경쟁 우위와 취약 요인을 점검
- 부족한 역량은 파트너십, M&A 등을 통해 적극 보완

3

AI 영향에 대한 종합 진단과
투자 실행력 강화



- AI가 시장, 기술, 운영,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대응체계 마련
- 투자 원칙은 유지하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 제고

4

AI 시대 투자 기회 재정의:
AI 수혜업종 선별 + 산업 재편 기회 포착



- AI 수혜영역 중심 투자 확대
 -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AI 확산 과정에서 구조적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자산 주목
- 시장 재평가 과정의 기회 포착
 - 산업 재편·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출회되는 저평가 우량 자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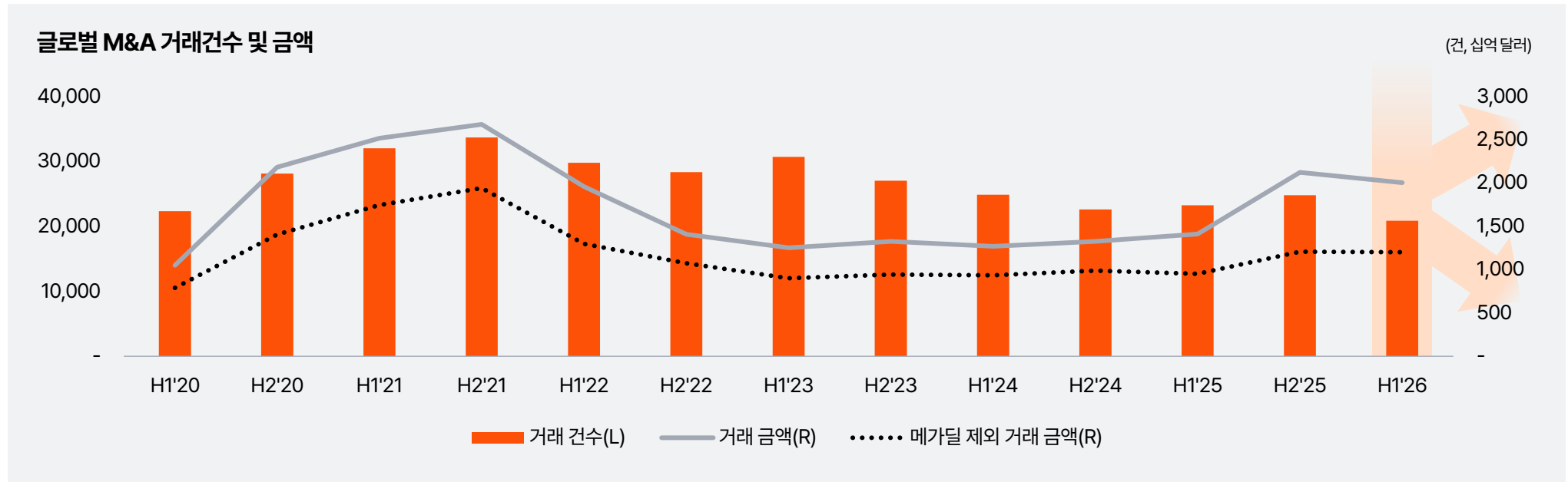


2026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 '26년 상반기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건수 20,835건(YoY -10%), 거래금액 2조 30억 달러(YoY +42%) 기록
 - 거래건수는 감소하며 최근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거래금액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메가딜¹ 증가에 힘입어 큰 폭으로 확대
- '26년 상반기 M&A 시장의 특징: K-커브(양극화) 심화 + AI 중심 시장 재편
 - 메가딜 중심 시장 회복: 초대형 거래가 시장을 견인 vs. 중소형 거래 부진 지속
 - 전체 M&A 거래금액에서 메가딜 비중: '20년 32% → '22년 29% → '24년 26% → '25년 39% → '26년 상반기 40%
 - AI가 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AI 관련 투자로 자금이 집중되며 산업 간 격차 확대
 - 전력, 데이터센터, 반도체, 네트워크 등 AI 핵심 인프라 분야로 투자 쏠림 심화
 - 반면, 범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AI 전환 리스크, 가격 압박, 자동화 영향 등의 우려로 구조조정과 산업 재편이 가속화
 - AI 기반 M&A 혁신: 투자자들의 AI 활용 확대로 실사·밸류에이션·투자심의 등 딜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 다만, 최종 의사결정은 여전히 인간의 판단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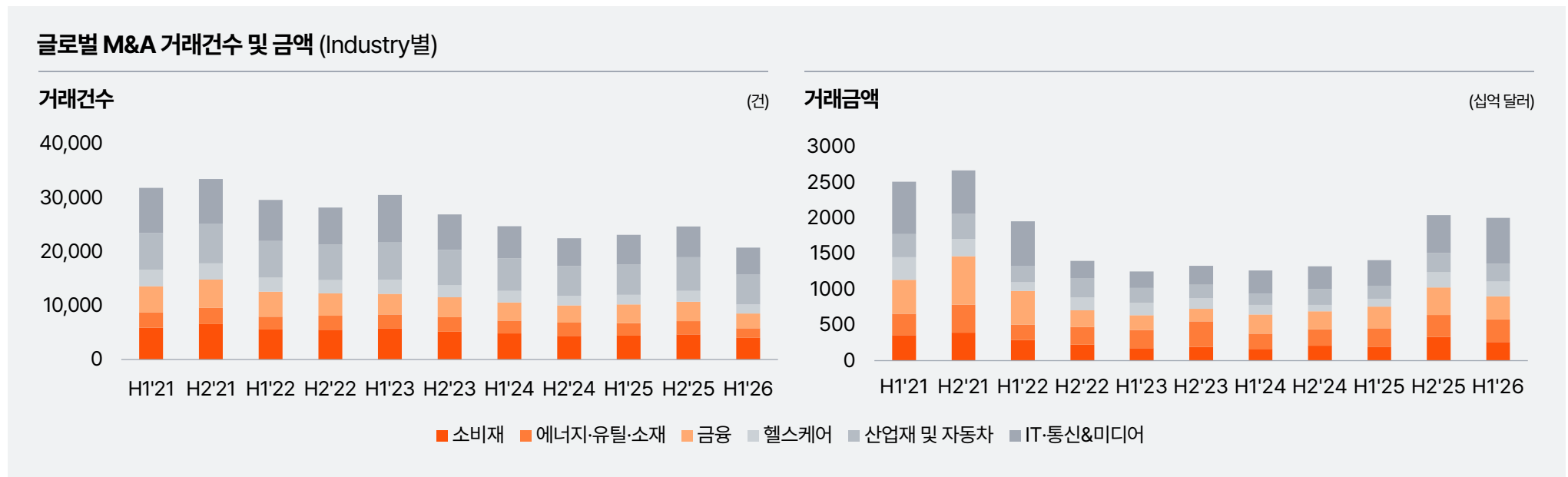
1 거래금액 50억 달러 이상의 대형 딜. 상세 내역은 11p 참조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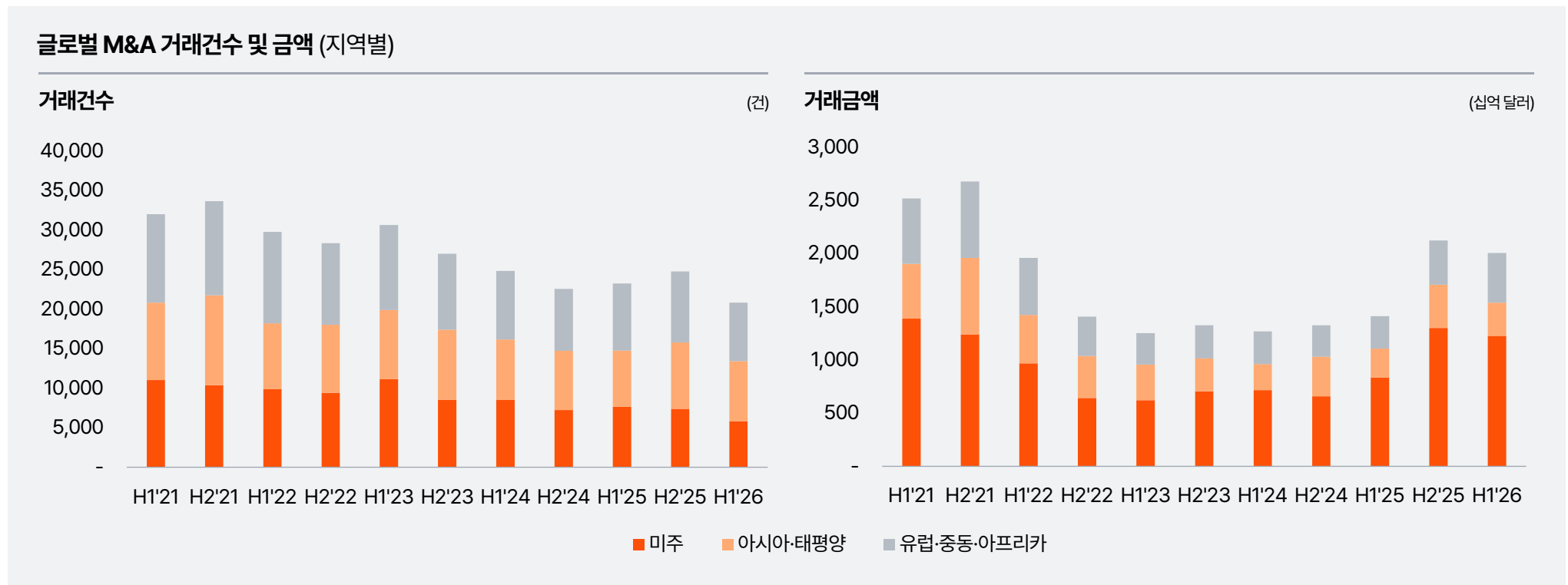
- 전 업종에서 거래건수는 감소하나 거래금액은 증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헬스케어(+86%), IT·통신 & 미디어(+80%), 산업재·자동차(+35%), 소비재(+34%), 에너지·유틸리티·소재(+22%), 금융(+7%) 순으로 거래금액 증가
 - 헬스케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5%, +86%): 대형 제약사들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 만료에 대응한 파이프라인 보강 수요가 M&A를 견인. 미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최근 인도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
 - IT·통신&미디어(YoY -8%, +80%): AI 확산으로 컴퓨팅·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되면서 M&A 시장 내 Tech 섹터의 영향력 증대
 - 총 거래금액 내 IT·통신&미디어 업종 비중: '21년 26% → '23년 19% → '25년 27% → '26.1H 32%
 - 산업재·자동차(YoY -3%, +35%):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정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제고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거래 추진
 - 소비재(YoY -10%, +34%): 영국·미국 시장 내 메가딜 진행, 이 외에도 브랜드·채널 위주의 소규모 거래가 지속
 - 에너지·유틸리티·소재(YoY -24%, +22%):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 증가. 미국 중심 투자 쏠림 현상 심화
 - 금융(YoY -19%, +7%): '25년에는 규모의 경제 확보를 위한 동종 업종 간 통합형 M&A가 활발. '26년에는 관련 모멘텀 약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전반적 거래 활동 둔화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지역별)

- 거래건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만 증가.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유럽·중동·아프리카(+53%), 미주(+47%), 아시아·태평양(+14%)순으로 증가
 - **미주(건수 및 금액 각각 YoY -25%, +47%)**: 거래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메가딜의 미국 쏠림 현상 심화로 거래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글로벌 M&A 시장을 주도
 - 전체 M&A 시장 내 미주 영향력 확대: 총 거래금액 내 미주 비중 '20년 45% → '22년 48% → '24년 53% → '26년 1H 61%
 - 평균 거래규모(Ticket Size)는 2.1억 달러로, 유럽·중동·아프리카(0.6억 달러) 및 아시아·태평양(0.4억 달러)을 크게 상회 크게 상회하며 지역 간 규모 격차 심화
 - **유럽·중동·아프리카(YoY -12%, +53%)**: 메가딜 효과로 거래금액 급증했으나, M&A 시장의 본격적 회복을 단정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
 - **아시아·태평양(YoY +8%, +14%)**: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거래건수가 증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메가딜 부진으로 거래금액 회복은 미미
 - 인도·일본 시장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진 지속되며 글로벌 시장 내 아태 지역의 위상 약화: 총 거래금액 내 아시아·태평양 비중 '20년 29% → '22년 25% → '24년 19% → '26년 1H 16%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글로벌 Top 10 Deals

■ ① AI 주도권 확보 및 인프라 선점, ②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③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메가딜이 시장을 주도

- **AI 주도권 확보 및 인프라 선점:** ▲북미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대응 위해 경쟁사인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와 합병 ▲아마존(Amazon)·엔비디아(Nvidia) 등 빅테크 기업, OpenAI 투자를 통한 전략적 협력 강화, ▲GIC(싱가포르투자청)·코투 등 투자자그룹은 차세대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앤트로픽(Anthropic PBC) 투자
-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미국의 식품 기업 맥코믹(McCormick), 영국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Unilever)의 식품사업부 인수 통해 조미식품·소스·식품 포트폴리오 확대. 반면, 유니레버는 비핵심 사업 매각을 통해 미용·생활용품 중심으로 사업 집중도 제고
- **규모의 경제 창출:**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 - 독일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인수 통한 지역 확장 추진, ▲미국 최대 식자재 유통업체 시스코(Sysco), 수입식품 전문 유통 기업 JRD 유니코(JRD Unico) 인수, ▲아벨론베이(AvalonBay)와 에퀴티레지덴셜(Equity Residential) 합병으로 미국 최대 부동산 투자회사 탄생. 합병을 통해 임대주택 시장 내 경쟁력 강화 및 비용 효율화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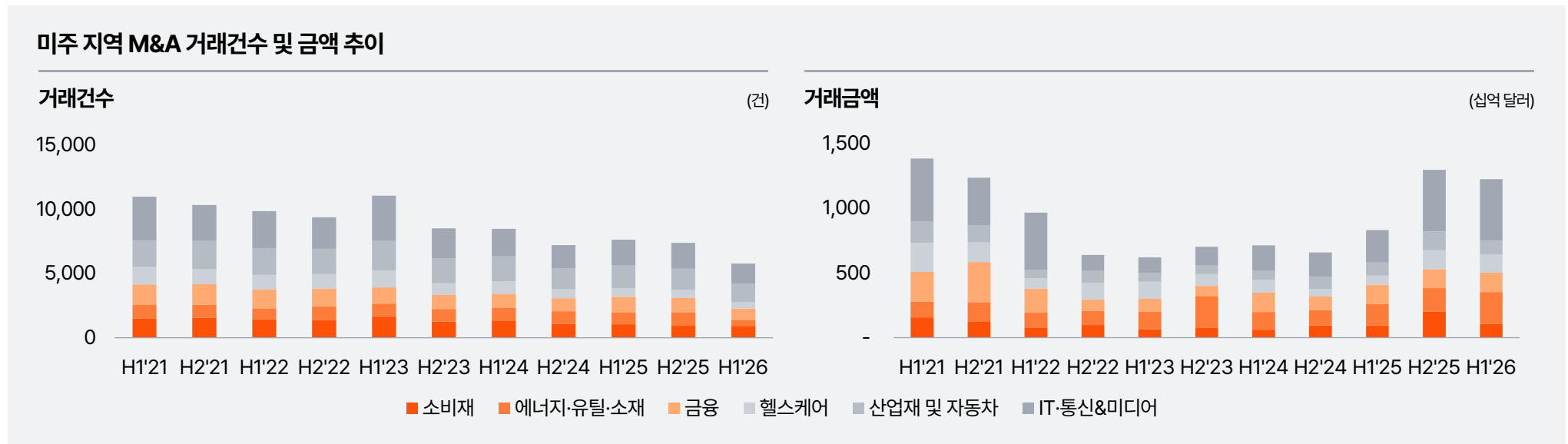
Top 10 Global Deals, 2026 상반기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US\$bn)
1	 Dominion Energy Inc	 NextEra Energy Inc	Power & Utilities	67 
2	 Universal Music Group NV ¹	 Pershing Square SPARC Holdings Ltd	Media and Entertainment	64 
3	 OpenAI Group PBC	 Amazon.com NV Investment Holdings LLC	Technology	50 
4	 Unilever PLC-Food Business	 McCormick & Co Inc	Consumer	45 
5	 Commerzbank AG	 Unicredit SpA	Banking & Capital Markets	44 
6	 OpenAI Group PBC	 Softbank Vision Fund 2	Technology	30 
7	 Anthropic PBC	 Investor Group	Technology	30 
8	 OpenAI Group PBC	 Nvidia Corp	Technology	30 
9	 JRD Unico Inc	 Sysco Corp	Retail	29 
10	 AvalonBay Communities Inc	 Equity Residential	Real Estate	26 

1. '26년 5월,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인수 제안 거절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미주)

- '26년 상반기 미주 지역 M&A 시장은 거래건수 5,790건(YoY -25%), 거래금액 1조 2,255억 달러(YoY +47%)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건수는 부진했으나, 메가딜 비중이 미주 전체 거래금액의 51%에 달하며 거래금액 증가세를 견인
 - 투자자금의 미국 집중 심화되며, M&A에서 미주의 영향력 확대
 - 총 거래금액 내 미주 비중: '20년 45% → '22년 48% → '24년 53% → '26년 1H 61%
- 거래건수는 전 영역에서 감소. 거래금액은 헬스케어(+100%), IT·통신&미디어(+89%), 에너지·유틸리티·소재(+48%), 소비재(+16%), 산업재·자동차(+7%), 금융(-1%)
 - 헬스케어: 보스턴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 - 혈전 제거 분야의 강자인 페넘브라(Penumbra)인수(145억 달러) 등 글로벌 Top 10 헬스케어 딜 중 8건이 미주에서 발생
 - IT·통신 & 미디어: AI 주도권 확보 경쟁이 컴퓨팅 인프라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초대형 거래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활발하게 추진
 - Open AI는 1,100억 달러(아마존 500억 + 소프트뱅크 300억 + 엔비디아 300억)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M&A 시장을 주도
 -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에너지 안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M&A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며 동종 업종 간 통합 거래를 견인
 - 북미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 경쟁사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인수(668억 달러)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전력망 확보
 - 석유·가스기업 데본 에너지(Devon Energy) - 코테라 에너지(Coterra Energy) 합병(214억 달러) 진행되며 미국 최대 셰일 운영사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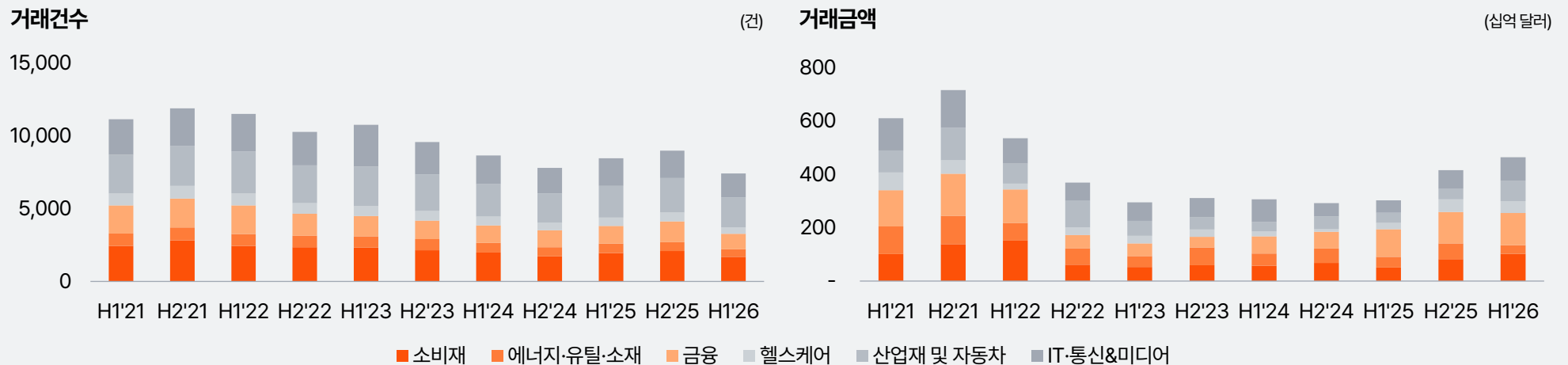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EMEA - 유럽·중동·아프리카)

- '26년 상반기 유럽·중동·아프리카 M&A 시장은 거래건수 7,425건(YoY -12%), 거래금액 4,655억 달러(YoY +53%)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건수 하락폭은 유사, 거래금액은 큰 폭 증가
 - 메가딜이 급증(YoY +225%)하며 글로벌 메가딜 내 EMEA 지역 비중 확대 ('25.1H: 11% → '26.1H 21%)
- 거래건수는 전 섹터에서 감소.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재(101%), 산업재·자동차(+101%), 헬스케어(+90%), IT·통신&미디어(+86%)에서 큰 폭으로 증가 vs 에너지·유틸리티·소재(-19%) 부진
 - **소비재**: 체중조절 약물과 저가 자체 브랜드(PB)의 등장으로 경쟁력이 낮아진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등 소비재 산업 내 포트폴리오 조정 발생
 - 영국 생활용품 기업 유니레버(Unilever), 식품사업부 매각(448억 달러) 통해 미용·생활용품 중심 기업으로 재탄생
 - **산업재·자동차**: 핀란드 엘리베이터 기업 코네(Kone) - 독일 경쟁사 TK 엘리베이터 인수(344억 달러)로 세계 최대 승강기 업체 도약 목표
 - **헬스케어**: '마운자로' 성공으로 막대한 현금을 확보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 영국 바이오 기업 센테사(Centessa) 인수(63억 달러)하며 수면의학 분야 파이프라인 확보
 - **에너지·유틸리티·소재**: 미주 중심으로 투자 쏠림 현상 심화되며,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M&A는 부진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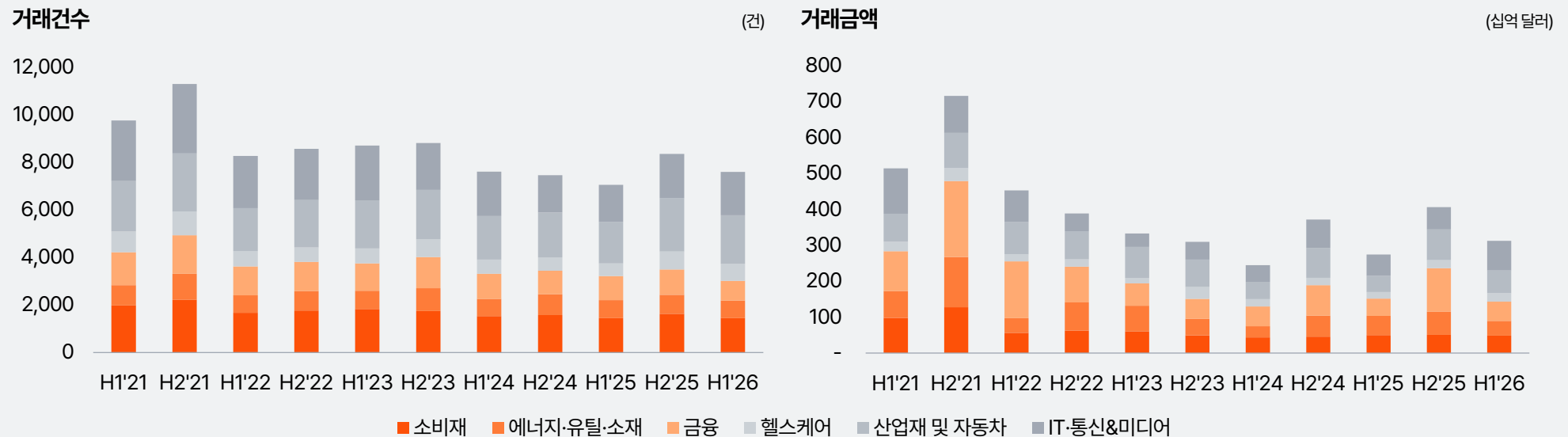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아시아·태평양)

- '26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시장은 거래건수 7,621건(YoY +8%), 거래금액 3,121억 달러(YoY +14%)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건수는 선방했으나, 메가딜 부진으로 거래규모는 가장 열위
 - 인도·일본 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진 지속되며 글로벌 M&A 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영향력 약화: 총 거래금액 내 아태 비중 '20년 29% → '26년 1H 16%
-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산업재·자동차(+40%), IT·통신&미디어(+40%), 헬스케어(+27%), 금융(+12%) 증가 vs 소비재(-2%), 에너지·유틸·소재(-25%) 부진
 - 산업재·자동차: 차세대 제품 개발과 생산능력 증설을 위해 SPAC 합병, 증자, 전략적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확보
 -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인 대만의 프롤로지움(Prologium),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SPAC인 TDAC와 합병 추진. 조달 자금은 배터리 생산능력 확대에 투자할 예정
 - 금융: 인구 구조 변화·디지털 은행과의 경쟁 심화 등 중장기적인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동종업계 내 대규모 합병 진행
 - 일본의 대표 지방 은행인 다이시 호쿠에츠 금융(Daishi Hokuetsu) - 군마 은행(Gunma Bank)과 통합(54억 달러)으로 신용도 제고 및 수익성 개선 추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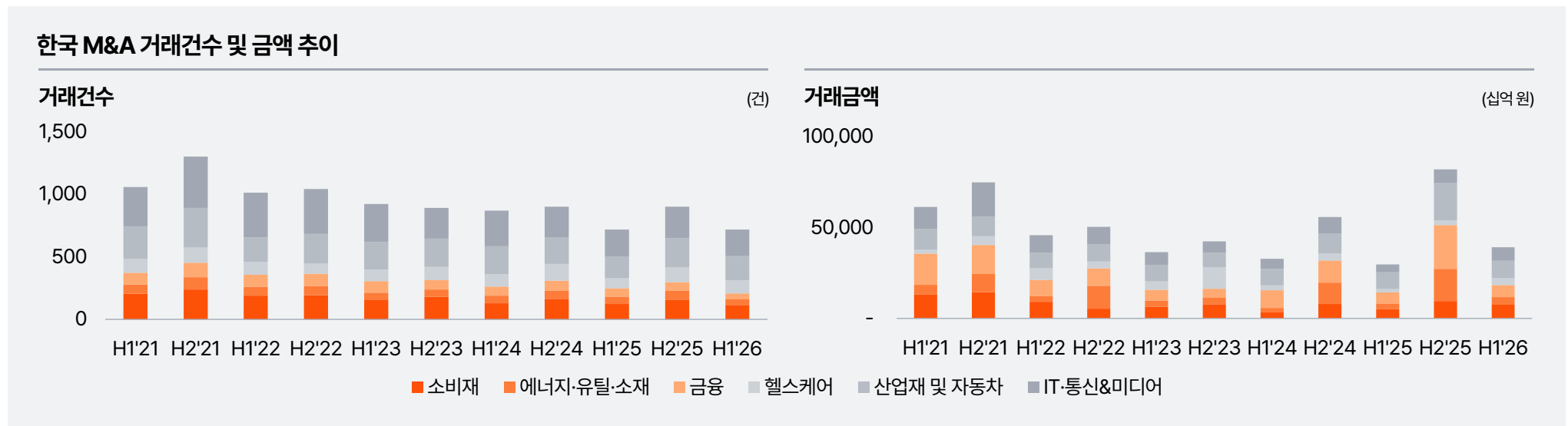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한국)

- '26년 상반기 국내 M&A 시장은 거래건수 718건(YoY 0%), 거래금액 39조 원(YoY +32%)¹ 기록
 - 글로벌 평균(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건수는 양호했으나, 거래금액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부진
- 거래건수는 헬스케어, 산업재·자동차에서 증가. 거래금액은 헬스케어(YoY +97%), IT·통신&미디어(+75%), 소비재(+48%), 에너지·유틸리티·소재(+32%), 금융(+10%), 산업재·자동차(+5%) 등 전 영역에서 회복세
 - 헬스케어: 투자자금 확보 및 사업 재편 목적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거래건수(YoY +31%)와 거래금액(+97%) 모두 큰 폭 증가
 - SK그룹 - 투자 자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SK바이오팜 지분 일부 매각(13.9%, 1조 2,500억). 차바이오텍 - 차헬스케어 지분 일부 매각(43.5%, 2천억 원) 통한 자금 확보
 - IT·통신&미디어: AI 관련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정비 추진
 - 삼성SDS - 사모펀드 KKR 대상 전환사채 발행(1조 2천억 원) → 조달된 자금은 AI 인프라 및 신사업 투자에 활용 예정
 - 카카오는 AI 중심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자회사 카카오게임즈 지분 일부(40% 이상)를 LAAA인베스트먼트(일본 '라인야후' 계열사)에 약 3천억 규모로 매각
 - 소비재: 해운업계의 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대형 자산 인수 확대. 거래건수 감소(YoY -9%)에도 거래금액은 큰 폭 증가(YoY +48%)
 - 팬오션 - SK해운의 초대형 원유운반선 10척 및 관련 사업을 9,740억 원에 인수. 스위스 SAS(Shipping Agencies Services) - 장금마리타임 지분 50%를 7,350억 원에 인수

1. 달러 기준으로는 +27% 증가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2026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한국 Top 10 Deals

■ '26년 상반기에는 ① 신성장동력 확보, ② 핵심 사업 역량 강화, ③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한 딜이 시장을 주도

- **신성장동력 확보:** ▲하나금융지주 및 한화투자증권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 취득을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성장 기반 강화, ▲NH투자증권 - 한국항공우주산업 CB 인수로 차세대 방산 성장성에 대한 투자
- **핵심 사업 역량 강화:** ▲벌크선 중심 사업구조를 보유한 팬오션 - SK해운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10척 및 관련 사업 인수를 통해 선대 경쟁력 강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대한항공 -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대한항공C&D서비스 지분 80% 전량 인수를 통해 기내식·면세사업 운영 안정성 및 품질 관리 강화
-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스틱한투인프라 - SK가스 자회사인 울산GPS 복합발전소 지분 49%를 취득하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 기반 마련, ▲주요 투자자 그룹 - 프라이م 부동산(서울스퀘어, 하나증권빌딩 등) 자산 인수로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

Top 10 South Korea Deals, 2026 상반기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십억 원)
1	 한화오션	 투자자 그룹(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항공·방산	1,700 
2	 ARA코리아자산운용 - 서울스퀘어 빌딩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부동산	1,300 
3	 SK바이오팜	 투자자 그룹(한국투자증권 등)	제약·바이오	1,250 
4	 울산GPS	 스틱한투인프라	전력·유틸리티	1,224 
5	 두나무	 하나금융지주	은행·자본시장	1,000 
6	 SK해운(초대형 원유운반선 사업부)	 팬오션	운송·물류	974 
6	 코람코더원리츠 - 하나증권빌딩	 하나대체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230호	부동산	811 
6	 대한항공씨앤디(C&D)서비스	 대한항공	리테일	750 
9	 두나무	 한화투자증권	은행·자본시장	598 
10	 한국항공우주산업(KAI)	 NH투자증권	항공·방산	500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6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매크로 환경 점검: 자본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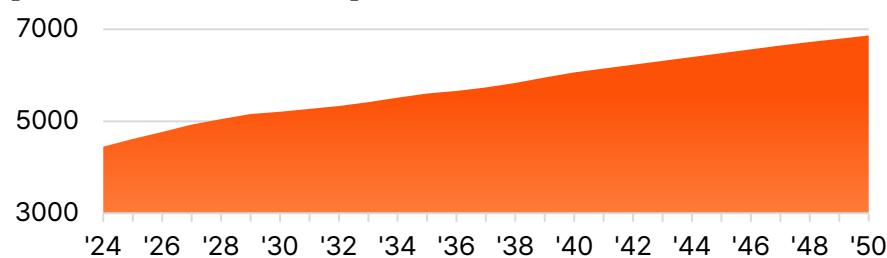
- 글로벌: AI 관련 투자 확대로 자본 수요 증가 vs. 경기 둔화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불확실성으로 자본 공급 여건은 악화 → 조달비용 상승 압력 확대
- 국내: 글로벌 조달 환경 악화에도 국민성장펀드(200조 원 규모)가 자금 공급을 뒷받침하며 산업재편을 지원 →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여건 유지 전망

자본 수요: 지속 증가

국가 자본주의 확산: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확대

AI·전력·에너지·방산 중심 투자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2050년까지 누적 151조 달러에 이를 전망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망: 연도별]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투자 확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주요 빅테크의 AI 설비투자는
2030년까지 누적 5조 3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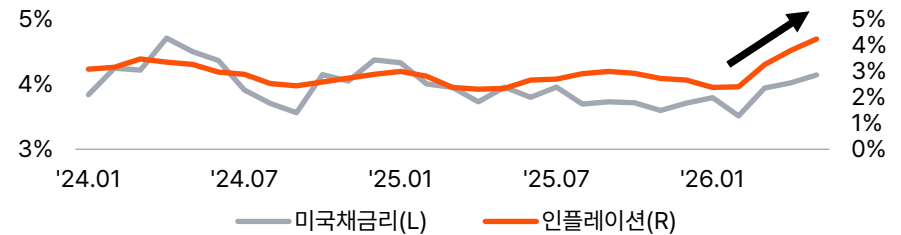
* 일본·영국·인도 등 주요국의 GDP를 웃도는 규모

자본 공급: 글로벌 조달 환경 악화, 한국은 국민성장펀드가 완충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로 '26년 성장 전망 0.2%p 하향(IMF, '26년 4월)
: 24년 3.3% → '25년 3.4% → **'26년E 3.1%**

중동발(發) 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되며 시장금리 상승



사모펀드 Exit 적체 누적되며, 자산 회수 압력 증대

PE의 5년 이상 보유 자산 비중: '25년 25% → '26년 6월 34%

한국, 국민성장펀드가 산업재편 및 M&A 자금 공급 뒷받침

총 200조 원 규모, 2030년까지 매년 40조 원 집행

주요 투자자 동향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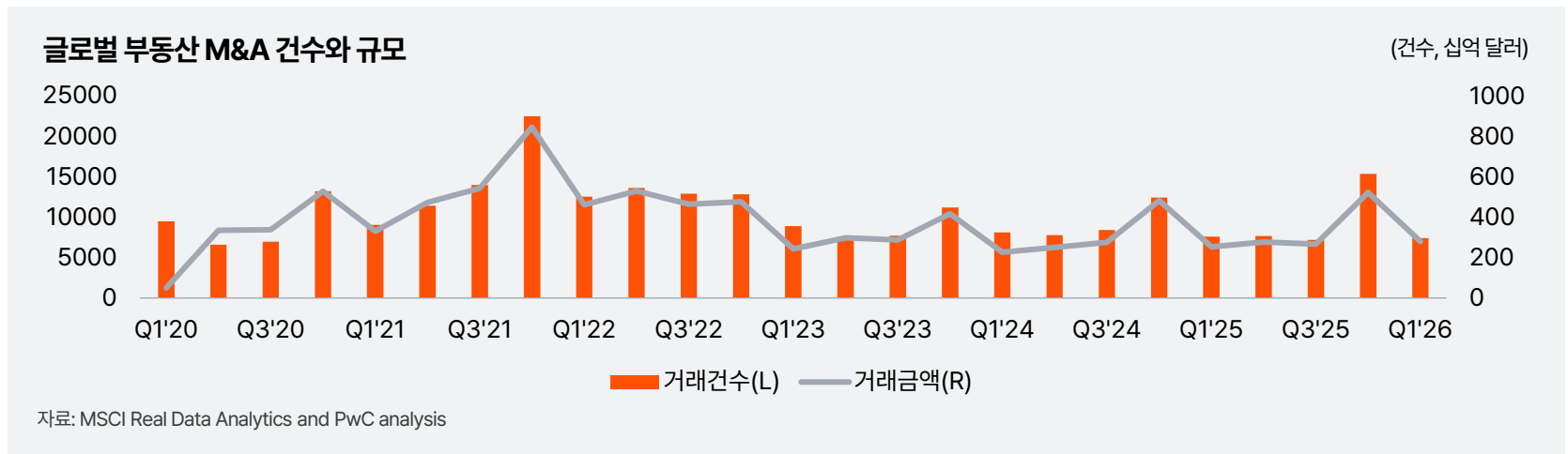
기업

- **['26년 상반기] 기업 주도 메가딜이 M&A 시장 회복을 견인.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력 인프라 확보에 중점**
- **['26년 하반기] Build와 Buy(M&A)를 병행한 성장동력 확보 전략 강화**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지속: 성장성과 전략적 가치가 높은 사업에 자본을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정리 및 사업구조 재편
 - **Cross-border 거래 확대:** 핵심 기술, 공급망, 신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M&A 수요 증가
 - **산업 간 양극화 심화:** 성장 산업 중심 투자 집중되며, 전통 산업은 거래 위축 및 밸류에이션 격차 확대

부동산

(Real Estate)

- **['26년 상반기] 전통 부동산 회복세 둔화, AI·디지털 인프라가 새로운 투자 사이클 견인**
 - 전통 부동산 자산군(오피스, 리테일, 주거 등)에 대한 투자 선호도 감소
 - AI 확산에 따라 자본이 데이터센터·전력·디지털 인프라 등 구조적 성장 자산으로 재배치되며 쏠림 현상 심화
- **['26년 하반기] 전력과 데이터가 부동산 부문의 핵심 투자 논리로 부상**
 - **전력 확보의 중요성 부각:** 전력망 접근성, 에너지 공급 안정성, 장기 전력 조달 능력이 투자 가치와 거래 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 **데이터 기반 플랫폼이 가치창출 원천으로 부상:** 축적된 부동산 데이터와 AI 분석 역량을 결합해 투자 기회 발굴, 자산 가치 평가 및 운영 최적화 추구



주요 투자자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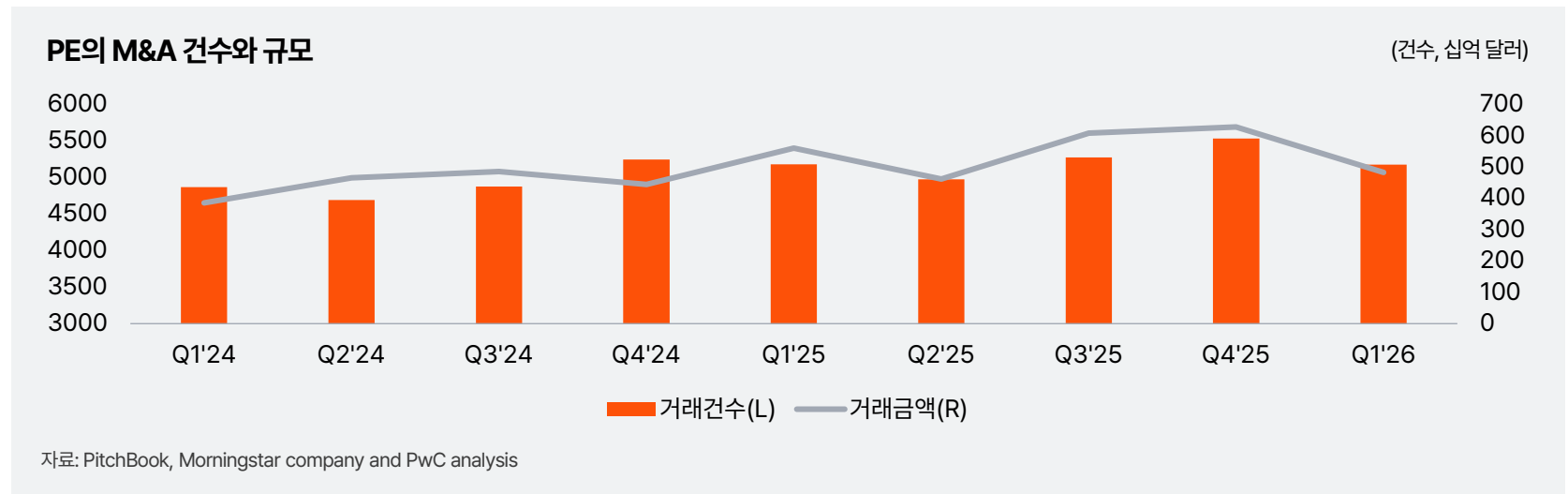
PE

['26년 상반기]

- **자본조달 제약과 AI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선택과 집중형 투자 기조 강화**
 - 거시경제 불확실성, 시중 금리 상승, Exit 시장 위축으로 PE의 자본 집행이 더욱 신중해지는 모습
 -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거래금액은 감소하며 투자 심리 회복이 지연 (YoY -14%, QoQ -23%)
 - 특히, AI가 수익모델 및 장기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재평가하면서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검토를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26년 하반기]

- **안정적 현금흐름과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보유한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 → 인프라가 PE의 핵심 투자처로 부상**
 - 데이터센터를 넘어 전력망, 에너지, AI 컴퓨팅 인프라 등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투자 확대
- **포트폴리오를 넘어 플랫폼 구축으로 전환**
 - 플랫폼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 산업 전문성, 데이터 활용 역량, 운영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체계 구축에 집중
 - 전략적 M&A를 통한 플랫폼 확장 가속화: 단순 규모 확대보다 전문 영역 확보, 딜 소싱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수 증가



2026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1 자본 비용 부담 확대에 따른 선별적 투자 기조 강화

- 높은 자본 비용과 유동성 제약 심화
 -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부담 확대
 - PE 투자 회수 지연 및 자산 보유 장기화로 시장 유동성 위축
- 자본 효율성 중심의 선별적 투자 강화
 - 투자자는 자본 효율성과 투자 회수 가능성을 더욱 중시
 - 제한된 자금이 성장성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2 AI가 주도하는 산업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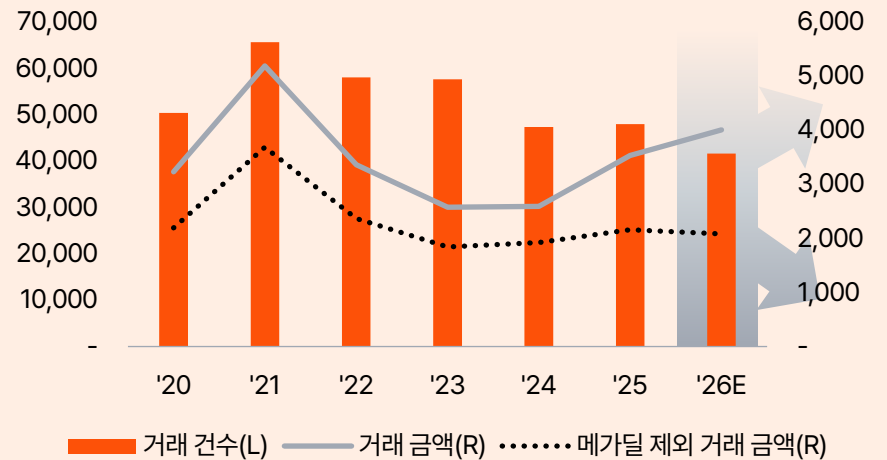
- AI 인프라 투자가 M&A의 핵심 동인
 - AI·데이터센터·전력·에너지 등 인프라 중심 거래
- 산업 간 성장성 격차 확대
 - AI 수혜 산업으로 자본 집중
 - 비수혜 사업의 구조조정·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가속

3 K-커브(양극화) 심화

- AI·에너지·인프라 중심 메가딜에 힘입어 2026년 글로벌 M&A 금액은 4조 달러 전망 (2021년 이후 최대)
 - 메가딜 비중이 전체 거래금액의 절반 수준까지 확대되며 시장 집중도 심화
 - 메가딜 제외 시 거래금액은 약 4% 감소해 중소형 거래 회복은 여전히 제한적

[글로벌 M&A 거래건수 및 금액]

(건, 십억 달러)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M&A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제언

1 불확실성 지속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거시경제, 지정학, 기술 변화 등 핵심 변수 모니터링 강화
- 주요 변수별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위기 대응 및 회복 탄력성(Resilience) 제고 방안 마련
- 복합 리스크를 반영한 자본 조달 및 투자 계획의 유연성 확보



2 AI 중심 산업 재편 속 경쟁우위 확보

- AI 시대 핵심 가치사슬 내 자사의 포지션을 명확히 정의
- 산업 재편 과정에서 자사의 경쟁 우위와 취약 요인을 점검
- 부족한 역량은 파트너십, 투자, M&A 등을 통해 적극 보완



3 AI 영향에 대한 종합 진단과 투자 실행력 강화

- AI가 사업, 시장, 기술, 운영, 재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평가
- 산업 구조 변화 속도에 부합하는 대응체계 점검
- 투자 원칙은 유지하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 제고



4 AI 시대 투자 기회 재정의: AI 수혜업종 선별 + 산업 재편 기회 포착

- AI 수혜영역 중심 투자 확대
 - AI 인프라, 데이터센터, 전력·에너지 등
- 시장 재평가 과정의 기회 포착
 - AI 영향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및 우려로 발생한 가치 괴리 활용
 - 견고한 시장지위와 현금창출력 보유한 기업 선별
 - 산업 재편·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출회되는 우량 자산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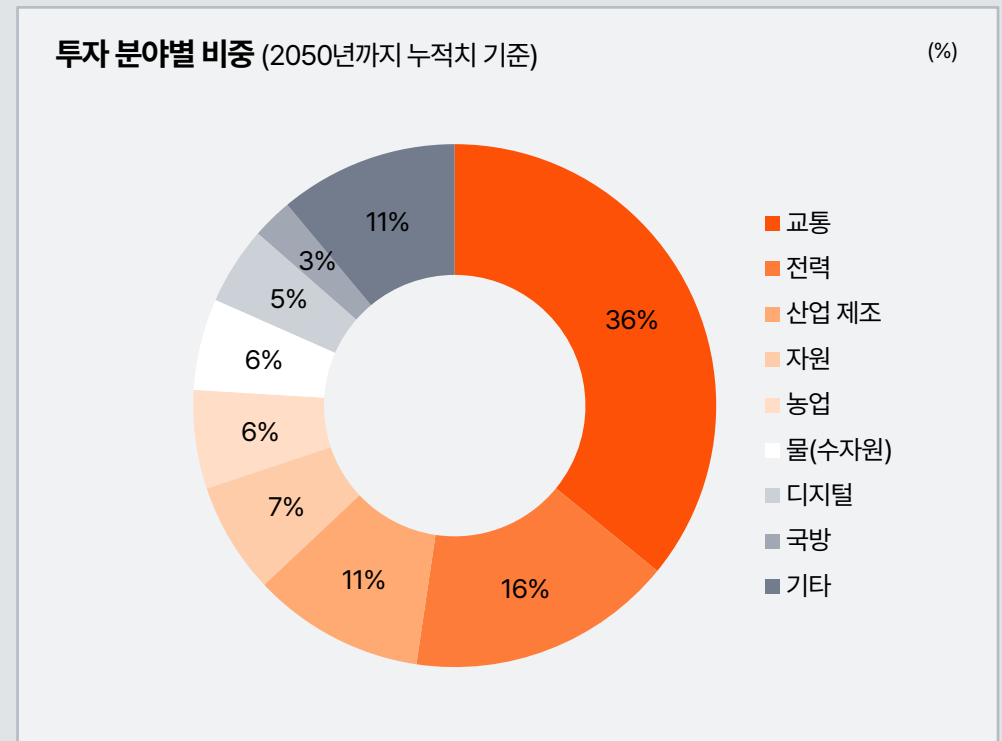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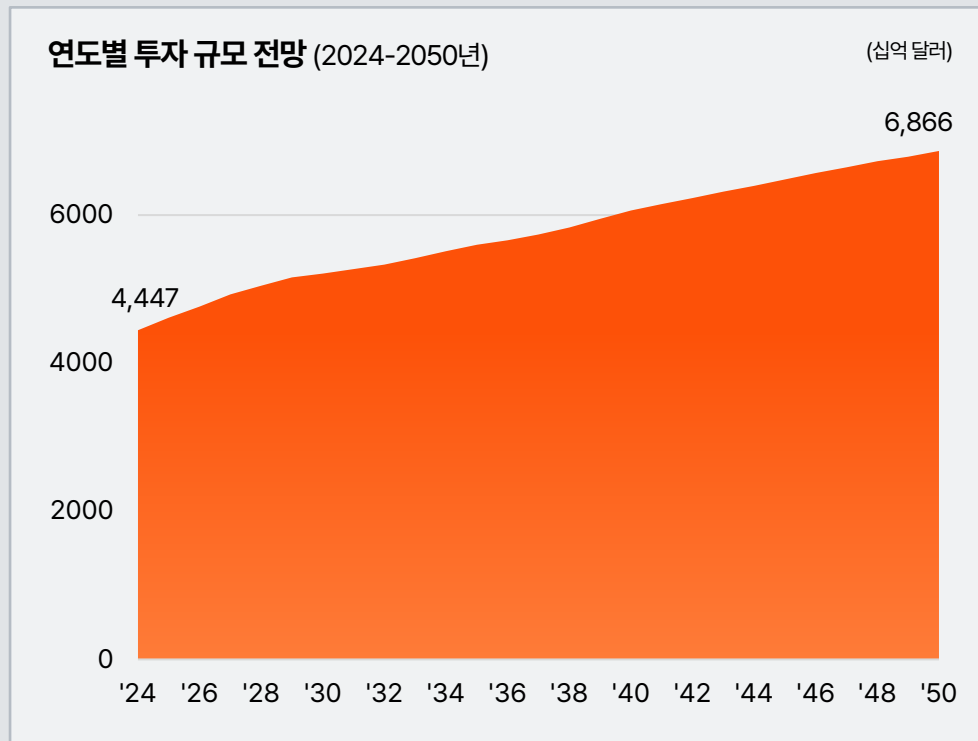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망: 수퍼 사이클 진입

2050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투자 규모는 누적 151.2조 달러(한화 약 22경 5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연간 투자 규모 지속 증가: ('24년) 4.4조 달러 → ('25년) 6.9조 달러

-인구 증가 및 도시화, AI 확산, 에너지 전환에 따른 구조적 수요 증가로 교통(36%), 전력(16%), 산업 제조(11%), 자원(7%) 분야에 인프라 투자 집중



참고: 모든 금액은 '23년 기준 미 달러로 추정

자료: PwC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2025-50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삼일PwC의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2025-50('26.06)'에서 확인 가능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망: 슈퍼 사이클 진입 - 업종별 상세(1/2)

교통 (글로벌 인프라 투자 내 비중: 36%)

2024년
연간 투자
1.4조 달러



향후 25년간
연평균 투자액
2조 달러



2050년 기준
누적 투자
50조 달러

- 인구 증가와 메가시티 확산에 힘입어 교통 인프라 수요 확대
 - 도로·교량 중심의 교통망 확충과 유지·보수 시장 성장 지속
- 여객 및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공항 시설 확장 가속화
-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철도 현대화

전력 (16%)

2024년
연간 투자
6,310억 달러



향후 25년간
연평균 투자액
1.1조 달러



2050년 기준
누적 투자
25조 달러

- 전기화 확산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전력 인프라 수요 지속 확대
 - 재생에너지·원자력 중심으로 전원 믹스 재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축소
 -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 가속화
- 전력망 현대화 및 확충에 힘입어 송배전(T&D) 설비 투자 증가

산업 제조 (11%)

2024년
연간 투자
4,720억 달러



향후 25년간
연평균 투자액
6,200억 달러



2050년 기준
누적 투자
15.5조 달러

- 선진국 인구 고령화와 신흥국 인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며, 제조 인프라 현대화(자동화)와 증설이 동시 진행
 - AI·로봇릭스·IoT 기반 스마트 생산시설 확산
 - 글로벌 인구 증가에 따라 일상 소비재·농업용 화학제품 생산능력 확충
- 재생에너지·수소 기반 넷제로 산업 클러스터 확산

자원 (7%)

2024년
연간 투자
4,800억 달러



향후 25년간
연평균 투자액
4,9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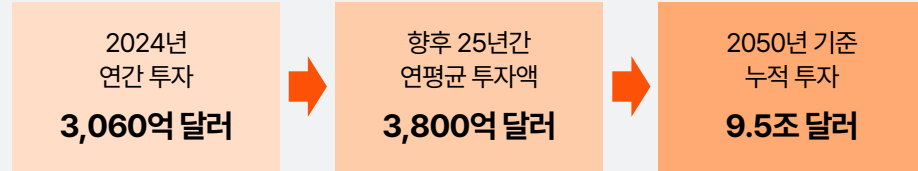
2050년 기준
누적 투자
12.3조 달러

- 탈석탄 기조로 석탄 투자 감소 vs. 석유·가스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역할 유지
- 전력망 현대화와 배터리 수요 확대에 따라 구리·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요 증가
- 자원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저장·정제 설비 및 공급망 구축 가속화

자료: PwC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2025-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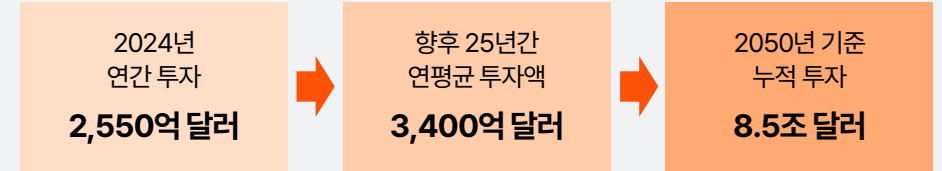
글로벌 인프라 투자 전망: 슈퍼 사이클 진입 - 업종별 상세(2/2)

농업 (글로벌 인프라 투자 내 비중: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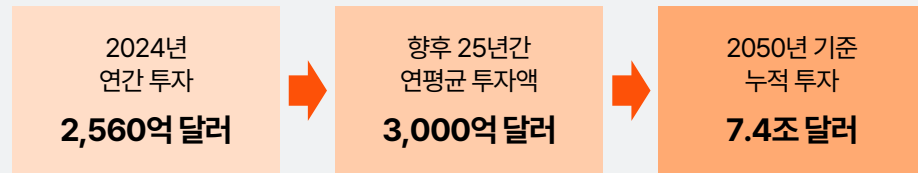
- 인구 증가와 식량 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한 농업 인프라 투자 확대
 - 아시아·태평양이 투자 확대를 주도(글로벌 투자 비중 75%), 중국 비중은 35%
 - 아프리카는 식량 수요 증가와 농업 현대화에 힘입어 신규 투자시장으로 부상

물: 수자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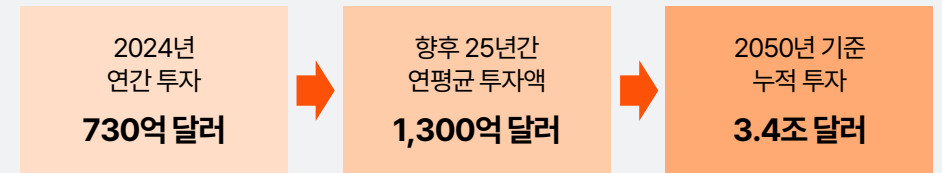
-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심화로 수자원 인프라 중요성 확대
- 선진국은 노후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 및 유지관리 수요 증가
- 신흥국은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설비 확충 추진

디지털 (5%)



- AI 확산에 따라 하이퍼스케일(초대형 단지)·코로케이션(임대형)·엣지(소규모 거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 다만 2040년대 이후 AI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데이터센터 건물 등 물리 인프라 중심의 투자 수요는 점진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힘입어 광통신·통신망 투자 증가

국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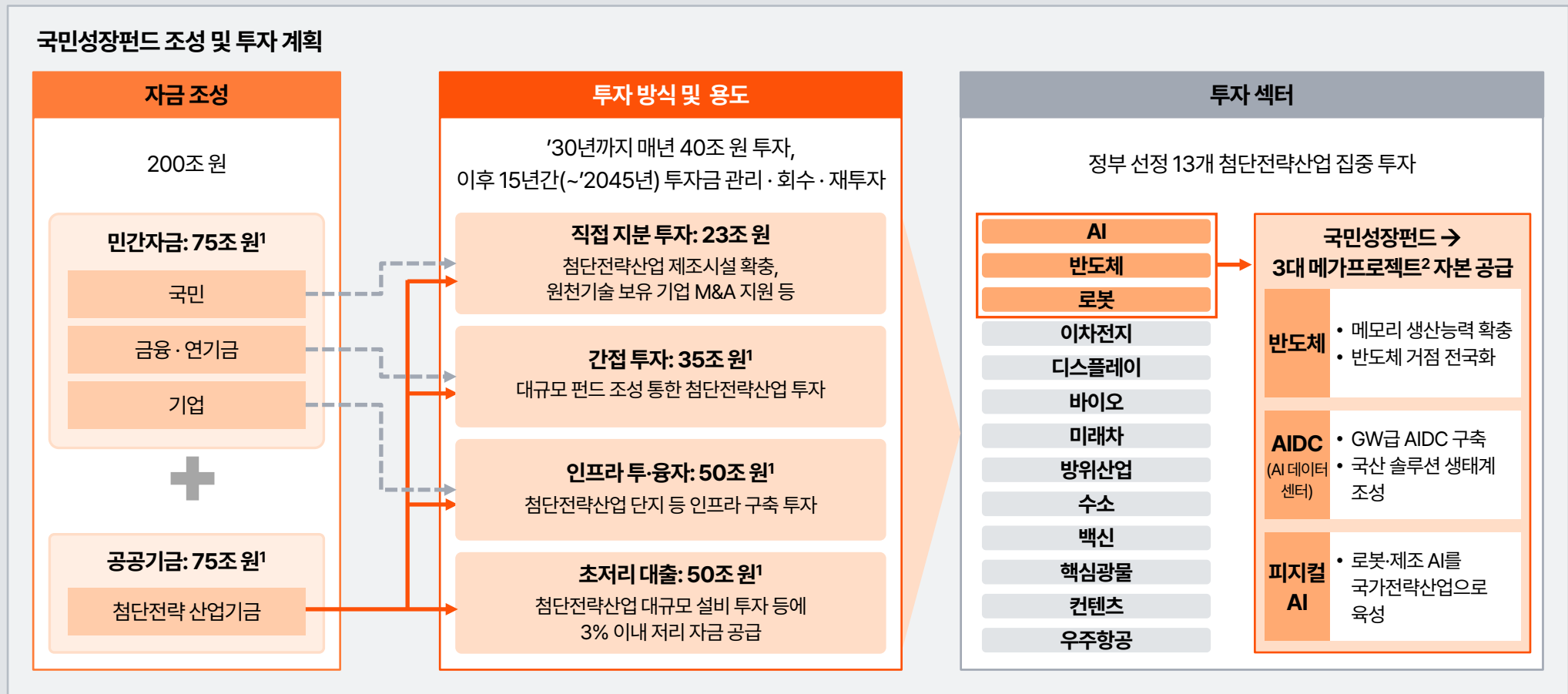
-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국방 인프라 확충 필요성 증대
 - 노후 군사시설 현대화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중점
-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한 데이터·통신 인프라 구축 가속화
- 민간 협력 확대에 힘입어 국방 인프라 분야의 민간 자본 참여 증가 전망

자료: PwC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2025-50

국민성장펀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본 공급

한국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산업 재편을 위해, 2030년까지 2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

- AI · 반도체 · 로봇 등 13대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매년 40조 원 규모 장기 성장자본 공급



1.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26.7월)했으나, 세부 조성·투자 계획은 미공개 상태로 본 자료는 기존 150조 원 기준('26.3월)을 반영

2.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향후 10년간 1,5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



산업별 M&A Trend 및 2026년 하반기 Outlook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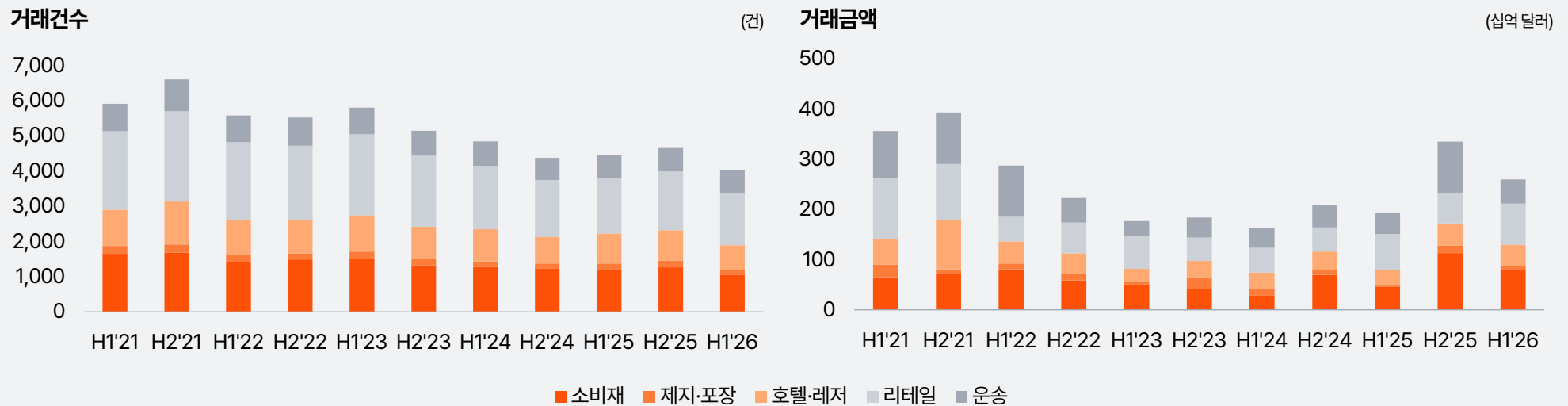
소비재



01. 소비재: 2026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6년 상반기 글로벌 소비재 M&A 거래건수는 4,026건(YoY -10%), 거래금액은 2,598억 달러(YoY +34%)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금액 회복세가 다소 약하지만, '23년을 저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양상
 - 영국과 미국에서 메가딜이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브랜드·채널 중심의 소규모 거래가 꾸준히 이어짐
- 세부 섹터별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제지·포장(+174%), 소비재(+76%), 호텔·레저(+34%), 리테일(+15%), 운송(+11%) 순으로 증가**
 - **제지·포장**: 맥주회사 앤하이저 부시(Anheuser-Busch), 알루미늄 가격 급등에 대응하고 포장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7개 알루미늄 캔 공장의 지분 매입(30억 달러)
 - **소비재**: GLP-1 계열 비만치료제 확산으로 수요가 둔화된 식품 브랜드 매각, 건강·웰니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저당·저칼로리 제품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 **호텔·레저**: 카지노 사업자 페르티타(Fertitta) - 미국의 카지노 대표 브랜드 시저스 엔터(Caesars Entertainment) 인수(176억 달러)를 통해 규모의 경제 확보 및 시장 지배력 강화
 - **리테일**: 대형 유통·도매 사업자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구매력(Buying Power)과 물류 효율성을 강화
 - 미국 최대 식자재 유통업체 시스코(Sysco) - 수입식품 전문 유통 기업 JRD유니코(JRD Unico) 인수. QXO는 지속적인 M&A를 통해 북미 건축자재 유통시장의 통합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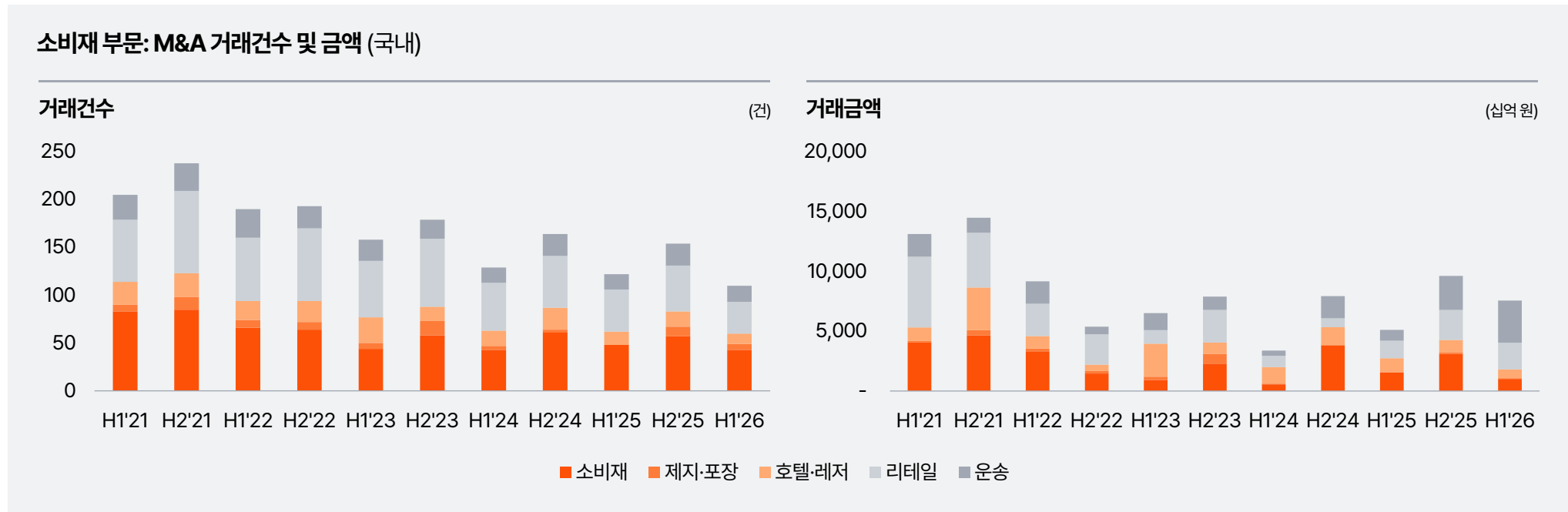
소비재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 (Global)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1. 소비재: 2026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6년 상반기 국내 소비재 M&A 거래건수는 111건(YoY -9%), 거래금액은 7조 5,7501억 원(YoY +48%)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0%, +32%) 대비 거래건수는 부진하였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높은 증가율 기록
 - 다만 '21년 고점과 비교 시, 여전히 절반 수준의 낮은 회복세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운송(+289%), 리테일(+52%) 증가 vs. 소비재(-35%), 호텔·레저(-38%) 감소
 - 운송: 팬오션 - SK해운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및 관련 사업 인수(9,740억 원) 통해 선대 경쟁력 강화.
스위스 SAS(Shipping Agencies Services, 세계 1위의 컨테이너선사 MSC 계열사) - 장금마리타임 지분 50%(7,350억 원)를 인수하며 탱커 사업 경쟁력 강화
 - 리테일: 대한항공 - 대한항공C&D서비스(기내식 공급 및 기내면세점 판매 담당) 지분 80% 전량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 기내식 공급 안정성 확보 목적
 - 소비재: '25년 한화호텔&리조트 - 아워홈 인수(8천억 원 대), 구다이글로벌 - 서린컴퍼니 인수(6천억 원 대) 등 대형 딜의 기저효과로 '26년 거래금액 급감
 - 호텔·레저: 신세계그룹 - '25년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명동, 그라비티 서울 판교에 이어 '26년 그랜드조션 제주 호텔 인수(2,630억 원)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1. 소비재: 2026년 하반기 M&A Outlook

💡 M&A 주요 테마

'Must-have Asset' 중심의 선별 투자와 AI·데이터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승계·PE 엑시트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전망

1.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 성장성·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매각하고, 경쟁우위가 높은 핵심 사업에 자본을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재정비 가속화
2. 'Must-have Asset' 중심 자본 집중: 시장 선도 브랜드, 카테고리 확장, 고객 접점 경쟁력, 공급망 통제력을 가진 자산에 투자 수요 집중
3. AI·데이터 확보 경쟁: 고객의 구매 과정에서 AI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데이터, 디지털 채널, 플랫폼 역량 강화형 투자 수요 확대
4. 승계·PE 엑시트에 따른 신규 매물 증가: 창업자·가족기업의 세대교체와 사모펀드 Exit 적체 해소가 맞물리며, 향후 중대형 매물 공급 확대가 예상

2026년 하반기 M&A Trend



소비자 헬스케어

- 웰니스·예방 중심 소비 확산에 따라 소비자 헬스케어 투자 선호
- 제약사의 비핵심 자산 매각 확대에 따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관련 거래 증가
- 신뢰도 높은 브랜드와 건강관리 플랫폼 중심의 선별적 M&A 확대



뷰티

- 시장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나 경쟁 심화와 소비자 니즈 세분화로 차별화 역량의 중요성이 확대
- 과학적 효능, 특허 기술, 전문가 신뢰도를 보유한 브랜드 중심 투자



음식료

- 건강·가성비 수요 확대에 맞춰 포트폴리오 재편
- 프리미엄·건강기능식품 중심으로 투자 확대



리테일

- 데이터·고객 접점 확보가 핵심 투자 논리→ 고객 접근성, 채널 경쟁력, 구매 데이터를 보유한 플랫폼 중심 거래 확대



관광

-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여행비용 상승으로 선별적 시장 전개: 프리미엄 vs. 가성비로 여행 수요 양극화
- 고소득층의 경험 중심 소비가 지속되는 가운데, 럭셔리 호텔, 웰니스 리조트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자산 중심의 M&A 지속



운송

- 무역 경로 변동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규모의 경제 확보와 네트워크 회복탄력성, 공급망 통제력 강화에 대한 수요 증가
- '26년 상반기 운송 섹터에서 10억 달러 이상 거래가 9건 발생하며, '25년도 연간 수준을 이미 달성하는 등 견조한 M&A 모멘텀이 지속
- 하반기에도 항만 인프라, 콜드체인, 헬스케어 물류, 항공 서비스, 라스트마일 배송 등 특화 자산 중심의 투자 확대 전망

자료: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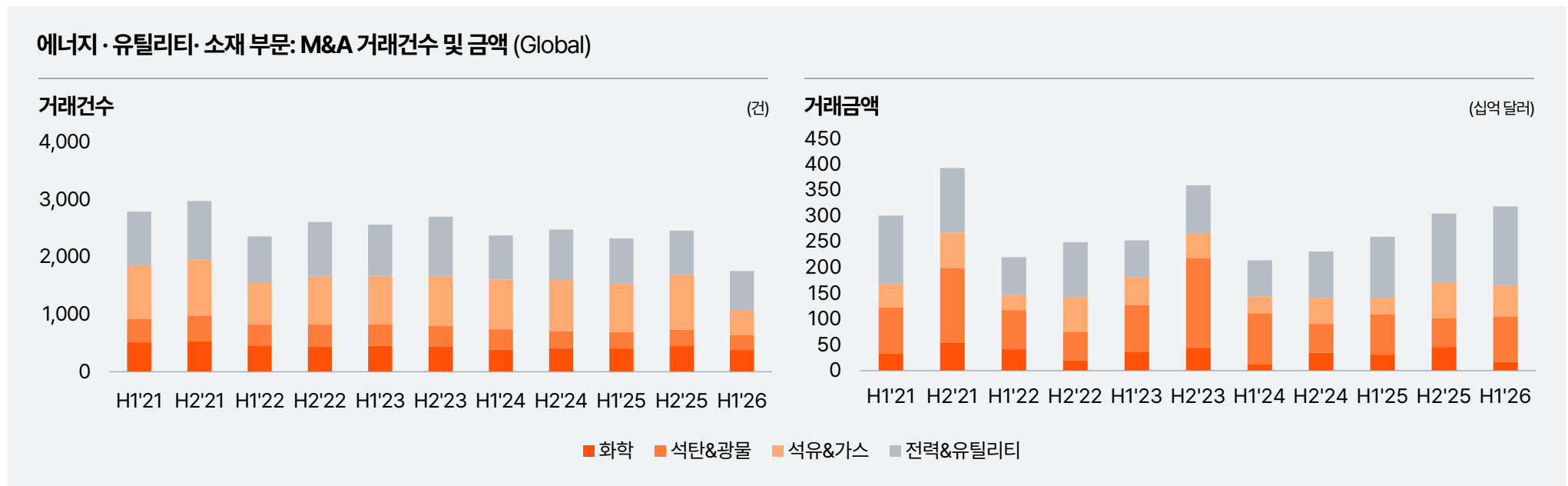
02

에너지·유틸리티·소재



02. 에너지·유틸리티·소재: 2026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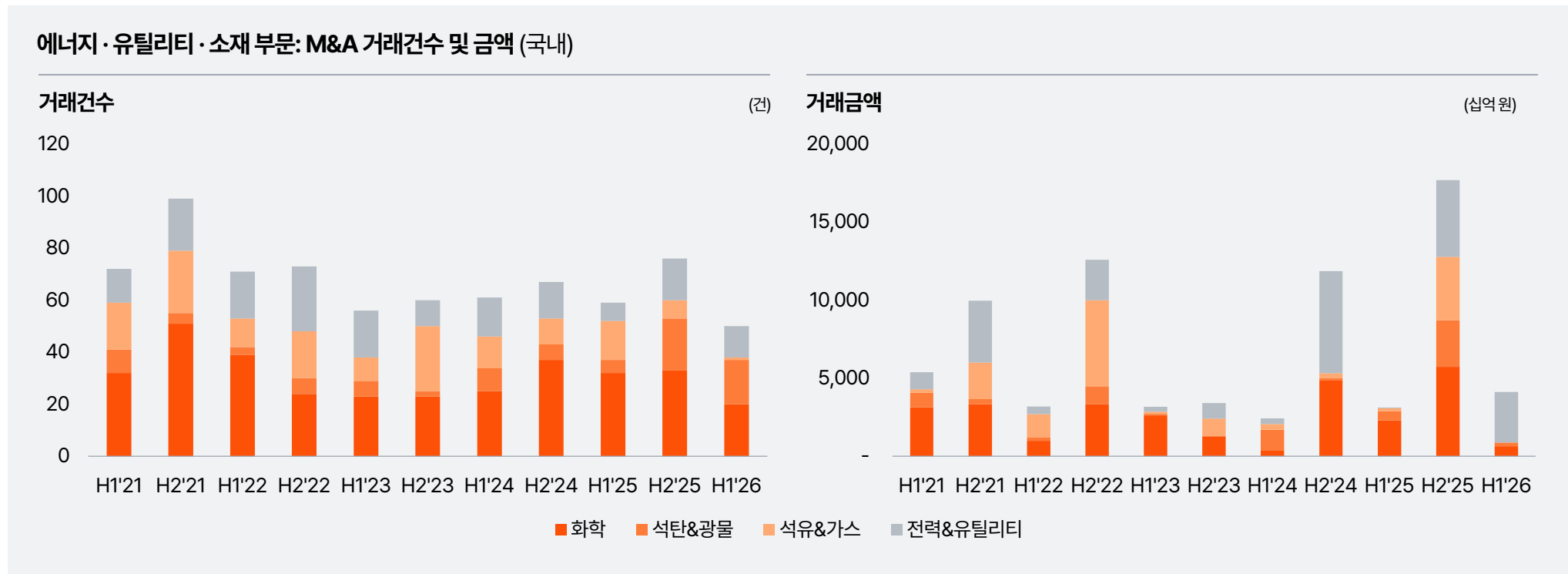
- '26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유틸리티·소재(EUR) 부문 M&A 거래건수는 1,760건(YoY -24%), 금액은 3,180억 달러(YoY +22%)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와 비교 시 거래건수와 금액 모두 상대적으로 약세
 - AI와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급격한 확장으로 전력·물·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북미 중심으로 투자 쏠림이 심화되며 다른 지역의 M&A는 부진한 흐름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석유&가스(+99%), 전력&유틸리티(+28%), 석탄&광물(+12%) 증가 vs. 화학(-46%) 감소
 - 석유&가스: 글로벌 EUR 부문 Top 10 딜 중 5건이 석유&가스 섹터에서 진행.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비용 상승 압력이 지속되면서, 공급망 통제력과 운영 효율을 위한 동종 업종 내 통합형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
 - 전력&유틸리티: M&A 트렌드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로 변화. 발전용량·송전망·기저전원 및 백업전원 확보를 위한 거래
 - 북미 최대 전력·에너지 인프라 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NextEra Energy) - 경쟁사 도미니언 에너지(Dominion Energy) 인수(668억 달러)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전력망 확보
 - 석탄&광물: '25년 급등한 금 가격의 영향으로 광산업체들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 금광업체 중심의 규모 확대 및 자원 확보형 M&A
 - 화학: 거래건수(YoY -6%) 및 거래금액(YoY -46%) 동반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지속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2. 에너지·유틸리티·소재: 2026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6년 상반기 국내 에너지·유틸리티·소재(EUR) 부문 M&A 건수는 50건(YoY -15%), 금액은 4조 1,170억 원(YoY +32%)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0%, +32%) 대비 거래건수는 상대적으로 저조했으나, 거래금액은 비슷한 수준을 기록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전력&유틸리티(+5,729%) 증가 vs. 석탄&광물(-61%), 화학(-72%) 감소
 - 전력·유틸리티: SK그룹은 미래 성장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유틸리티 자산을 매각하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가속화
 - 발전 자회사인 울산GPS(지분 49%, 1조 2,240억 원)와 SK멀티유틸리티(지분 49%, 3,710억 원)를 스틱인베스트먼트에 매각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SK이터닉스 지분 31%를 2,480억 원에 KKR에 매각
 - 화학: LCD 화학 소재 기업 동진썬미켈 - 중국의 공급망 자립 정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OLED 전환에 대응해, 중국 소재 자회사를 2,740억 원에 매각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2. 에너지·유틸리티·소재: M&A Outlook

💡 M&A 주요 테마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핵심 화두로 부상. 발전·LNG·전력망·핵심광물 중심의 M&A 확대

- 1. 에너지 안보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안으로 안정적 연료·인프라 확보에 집중. 특히 천연가스 분야 업스트림·미드스트림 자산 선호
- 2. 전방위 에너지 투자:**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발전·원전·저장설비·전력망 전반으로 투자 확대. 신규 증설보다 기존 발전설비, 전력망 연계 자산 등 즉시 활용 가능한 인프라 자산에 프리미엄 부여
- 3. 규모의 경제 확보:** 운영 시너지 창출, 비용 절감 및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동종 업종 내 대형 합병이 증가

2026년 하반기 M&A Trend



전력·유틸리티

- AI·데이터센터·산업 자동화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하며, 투자 초점이 '잠재력'에서 '실질적 공급력(deliverable capacity¹)'으로 이동
- 이에 따라, 현재 가동 중인 자산, 기존 발전 설비, 전력망 연계 플랫폼, Behind-the-Meter² 솔루션 등 즉시 공급 가능한 전력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 확대

1. Deliverable capacity: 단순 발전 설비 용량이 아니라, 전력망 접속·인허가·송전 능력 등이 확보되어 실제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용량
2. Behind-the-Meter: 수요처 인근, 고객 시설 내에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분산형 전력 솔루션



광물

- 투자자의 관심은 전기화, 디지털 인프라 연계 광물
 - 금: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금 광산 투자 지속
 - 구리: 전기화, 전력망 확장,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핵심 투자 대상 지위를 유지. 2027년 이후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우량 구리 자산 중심의 통합 지속
 - 희토류 및 핵심 광물: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가공 역량, 오프테이크³ 확보, 공급망 안정성을 고려한 투자 증가

3. 오프테이크: 생산자가 향후 생산할 광물·원자재를 구매자가 장기에 걸쳐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석유·가스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며, '생산량 확대'보다 '공급 안정성과 현금흐름 지속성'이 핵심 투자 기준으로 부상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보완 자원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 증가. 특히 가스 생산·수송·처리·수출을 연결하는 통합 LNG 밸류체인 구축에 관심
- 병목 해소와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드스트림 인프라(파이프라인·가스처리시설·LNG 터미널) 투자 증가



화학

- 스페셜티 투자와 구조조정 중심의 2개 트랙으로 M&A 전개 전망
 - 스페셜티: 고부가가치 화학 소재 중심 투자 지속. 특히 에너지 전환, 수처리, 반도체, 배터리, AI 인프라 관련 분야로 투자 집중
 - 구조조정: 범용화학 부문 수익성 압박이 지속되며 사업 재편 및 비핵심 자산 매각 확대

자료: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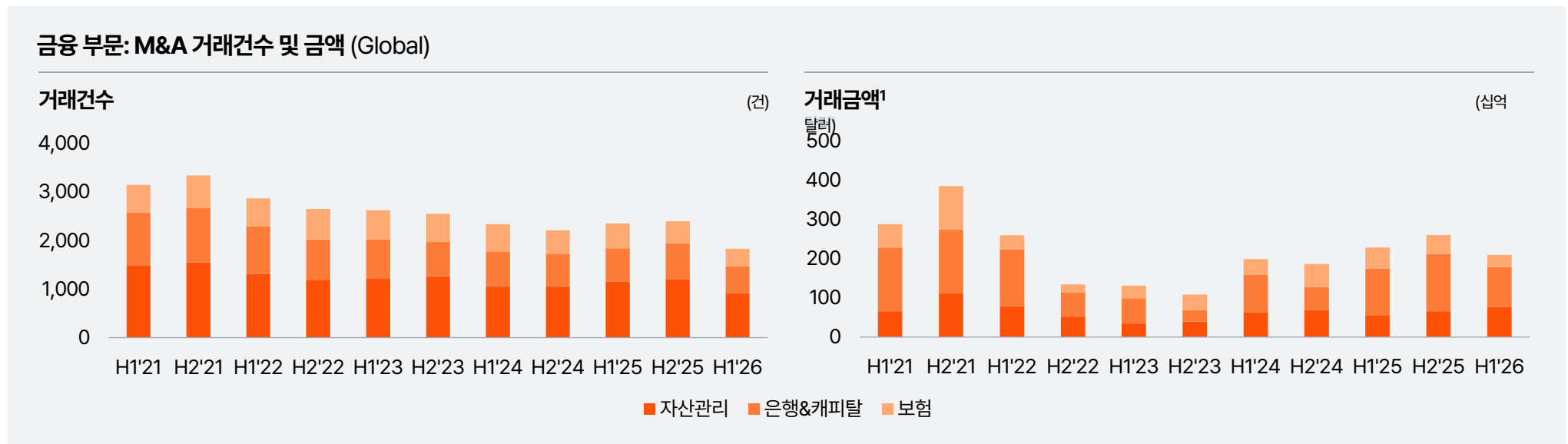
03

금융



03. 금융: 2026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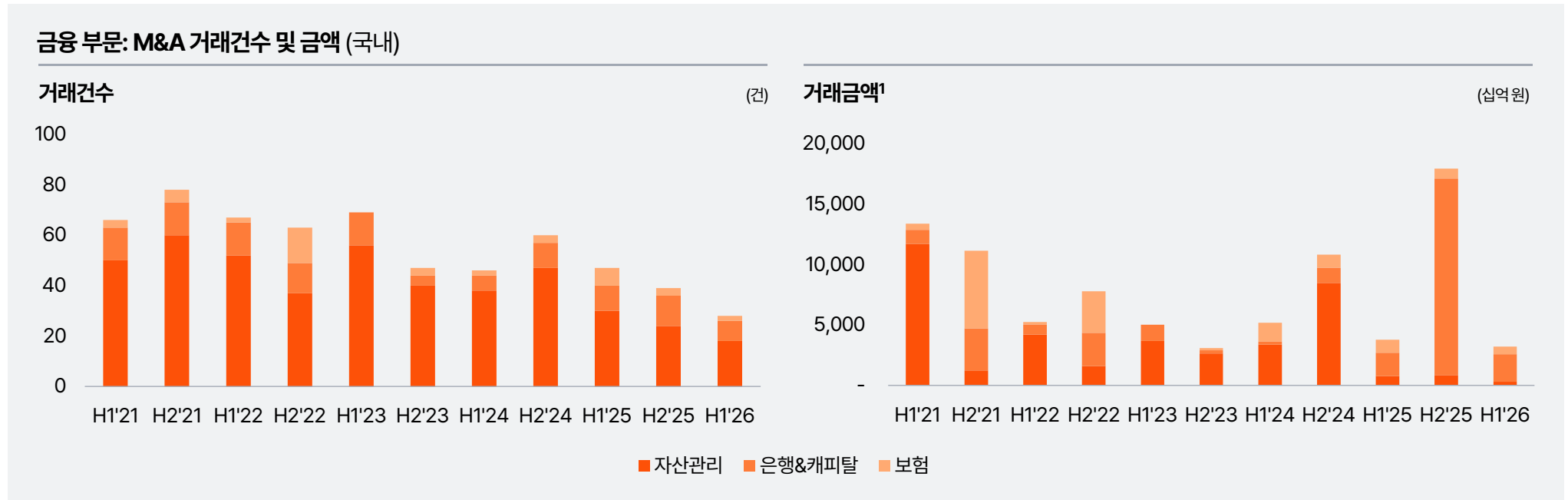
- '26년 상반기 글로벌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는 1,834건(YoY -22%), 거래금액은 2,103억 달러(YoY -8%)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부진한 흐름. '25년 기저 효과,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변동성 확대로 전반적 시장 위축
 - 7건의 메가딜 영향으로, 거래건수 급감에도 거래금액은 상대적으로 양호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자산관리(+39%) 증가 vs. 은행&캐피탈(-15%), 보험(-42%) 감소
 - **자산관리**: 독립 자문사, 부티크 운용사, 중형 사모펀드 중심으로 성장 기회 확보와 수익원 다각화 목적의 M&A 활발
 - **은행&캐피탈**: 효율성 제고 및 지역 확장을 위한 은행권 M&A는 지속되나,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신규 거래 다소 둔화. 반면 디지털자산 제도에 힘입어 핀테크·지급결제·디지털자산 분야 중소형 규모 M&A는 지속
 - 이탈리아 유니크레딧(Unicredit) - 독일 코메르츠뱅크(Commerzbank) 지분 인수(440억 달러), 스페인 방코 산탄데르(Banco Santander) - 미국 웹스터 은행(Webster Bank) 인수(122억 달러) 등 지역확장을 위한 대형 딜 지속
 - **보험**: M&A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반면, 스페셜티 보험 부문은 투자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
 - 스위스 취리히(Zurich) 보험그룹 - 영국 비즐리(Beazley)보험 인수 제안(103억 달러) → 사이버, 해상, 항공·우주, 미술품 보험 등 특종보험 부문 강화 추진



1. 금융 부문에 대한 M&A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은 제외한 수치로 작성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3. 금융: 2026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¹

- '26년 상반기 국내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는 28건(YoY -40%), 거래금액은 3조 2,026억 원(YoY -15%)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0%, +32%) 대비 거래건수·거래금액 모두 부진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은행&캐피탈(+18%) 증가 vs. 보험(-42%), 자산관리(-62%) 감소
 - **은행&캐피탈**: 전통 은행업 성장 둔화에 대응해 디지털자산·핀테크 투자를 병행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 하나금융지주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 6.6%를 약 1조원에 인수하며, 디지털자산·핀테크 생태계 내 입지 강화
 - 한화투자증권 - 두나무 지분 3.9%를 약 6천억 원에 추가 취득해 지분율을 9.8%로 확대
 - **보험**: 우리금융은 '24년 동양생명(지분 75.3%)과 ABL생명(지분 100%)을 약 1.6조 원에 인수한 데 이어, '26년 동양생명 잔여 지분 22.1%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취득해 완전 자회사화 예정. 향후 ABL생명과 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비용 효율화를 실현하고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 **자산관리**: 유의미한 거래의 부재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거래금액 기록



1. 금융 부문에 대한 M&A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자, 부동산은 제외한 수치로 작성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3. 금융: 2026년 하반기 M&A Outlook

💡 M&A 주요 테마

수익성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종 업종 M&A 지속. 주요 관심사는 ▲규모 확대 ▲비용 효율화 ▲AI 기반 디지털 역량 확보

1. **규모 확대와 운영효율 중심 통합**: 수익성 압박과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 확대, 비용 절감, 운영 효율화 목적의 통합 M&A 지속
2.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산업 간 경계 약화와 규제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 인수, 비핵심 자산 매각(Carve-out) 등을 통한 포트폴리오 최적화
3. **대체자본 영향력 확대**: 사모크레딧을 비롯한 대체자본이 자금 조달 및 거래 구조에서 차지하는 역할 확대
4. **디지털·AI 역량 확보**: 핀테크·지급결제·디지털자산 및 AI 기반 운영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2026년 하반기 M&A Trend



은행· 자본 시장

- 지역 확장 및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은행 간 통합 지속
- 전통 금융업과 디지털 금융 간 경계 약화 → 기술 역량 확보형 M&A 진행
 - 핀테크, 지급결제, 디지털자산(수탁,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등) 관련 역량 확보
- 사모크레딧 등 대체자본의 영향력 확대 → 은행의 포지셔닝 재정립 가속화
 - 대차대조표 점검: 핵심 유지 자산과 비핵심 자산을 재평가하는 한편, 대체자본과의 협력 및 자산 매각 기회를 적극 검토



보험

-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전문 언더라이팅 역량 확보를 위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가 간) M&A 지속
- 스페셜티 보험사(특수 손해보험 및 Lloyd's 플랫폼¹)가 M&A 핵심 타겟으로 부상
 - 1. Lloyd's 플랫폼: 런던에 위치한 세계 최대 특수보험 시장으로, 전 세계 보험사, 재보험사, 투자자, 보험 브로커가 모여 특수·대형 위험을 거래
- AI·디지털 기반 운영 효율화 및 언더라이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슈어테크(Insurtech) 투자 확대



자산운용

- 금융산업 내 융합 가속화: 은행·보험사·사모펀드의 자산운용·자산관리업 인수 확대
- 대체자산 운용사 중심의 선택적 M&A 지속: 사모크레딧·인프라·부동산 등 고성장·고수수료 사업 투자 확대
- 고액자산가 자산관리(WM) 시장 통합: 규모의 경제, 디지털 역량, 자문 인력 생산성 강화를 위한 플랫폼 통합
- PE 보유자산의 Exit 지연으로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회수 전략과 유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운용사에 대한 선호

자료: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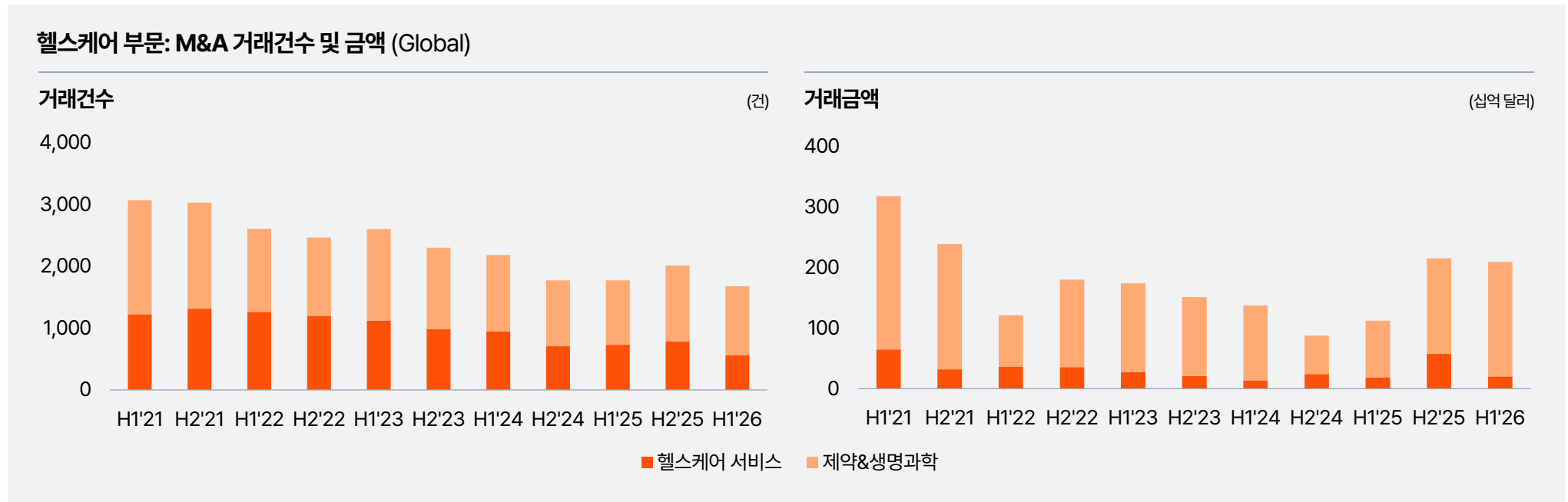
04

헬스케어



04. 헬스케어: 2026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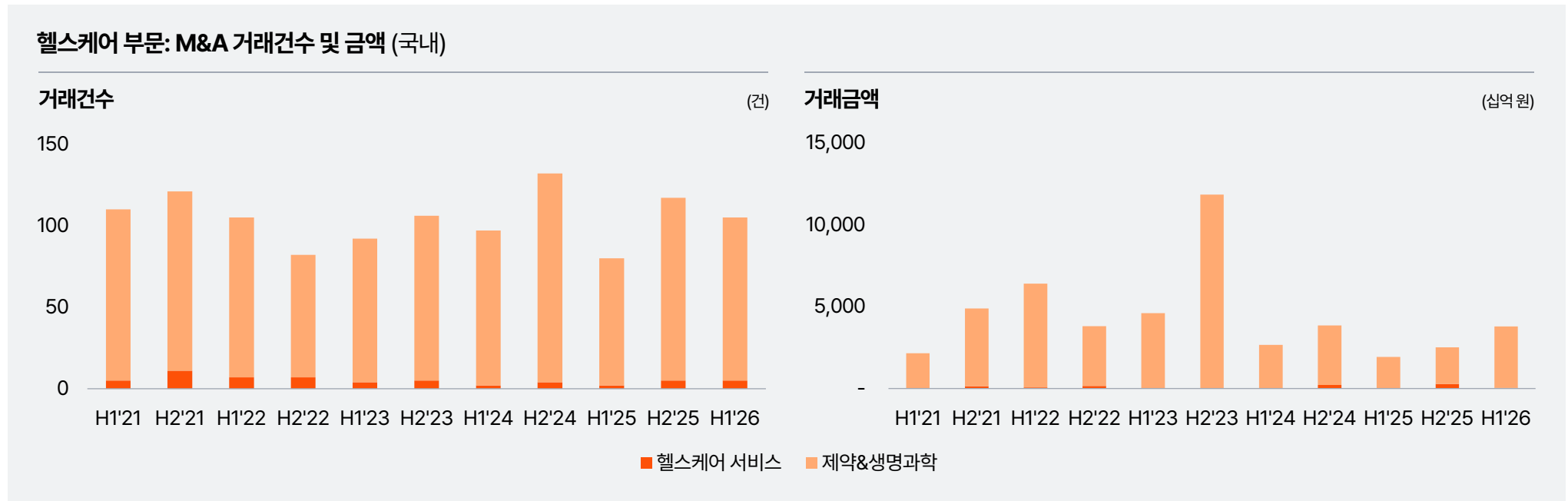
- '26년 상반기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 M&A 거래건수는 1,678건(YoY -5%), 금액은 2,090억 달러(YoY +86%)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높은 거래금액 증가율 기록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가 임상·생산 역량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바탕으로 주요 시장으로 부상
 - 인도 제약사 선폴마(Sun Pharmaceutical) - 미국 오가논(Organon)을 118억 달러에 인수하며, 여성 건강·바이오시밀러 사업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Top 25 제약사로 도약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제약&생명과학(+100%), 헬스케어 서비스(+13%) 증가
 - **제약&생명과학**: 대형 제약사들은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대응하기 위해 M&A를 통한 파이프라인 보강을 지속
 - MSD, 일라이 릴리(Eli Lilly), 길리아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바이오젠(Biogen) 등 미국 빅파마들은 신약 후보물질 및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
 - **헬스케어 서비스**: 글로벌 최대 규모의 동물 헬스케어 기업 코베티루스(Covetrus) - MWI 애니멀 헬스와 35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 체결 → 동물의약품 공급망 및 수의학 소프트웨어 플랫폼 결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4. 헬스케어: 2026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6년 상반기 국내 헬스케어 부문 M&A 건수는 105건(YoY +31%), 금액은 3조 7,924억 원(YoY +97%)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0%, +32%) 대비 거래건수 및 금액 모두 크게 증가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제약&생명과학(+98%), 헬스케어 서비스(+40%) 증가
 - 제약&생명과학: 재무적 투자자(FI) 중심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며, 거래 건수(+28%)와 거래 금액(+98%)이 모두 증가
 - SK - SK바이오팜 지분 13.9%(1조 2,500억 원)를 매각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 추진
 - D&D 파마텍 - 대사성 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2,265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전환사채 발행
 - 차바이오텍 - 차헬스케어 지분 43.5%(약 2천억 원)를 매각해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그룹 포트폴리오 재편 추진
 - 헬스케어 서비스: M&A 활동이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한국의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글로벌 대비 규모가 매우 작아 유의미한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국내 헬스케어 M&A Top 10 모두 제약 & 생명과학 섹터가 차지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4. 헬스케어: 2026년 하반기 M&A Outlook

💡 M&A 주요 테마

▲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넘어, ▲ 소비자 의료 ▲ 플랫폼 기반 사업모델 강화가 새로운 투자 테마로 부상

1. **소비자 중심 의료 확산:** 여성 건강, GLP-1(비만치료제), 피부과, 예방의료 등 자비부담(Self-pay) 시장 성장 → 소비자 접근성 기반 의료 모델 부상
2. **파이프라인 확보:** 특허 만료 대응을 위해, 임상 근거가 검증된 자산과 후기 개발단계 신약 중심 M&A
3. **기술 중심 딜 확대:** 데이터, 진단 플랫폼, 디지털 의료 인프라, AI 업무 프로세스가 핵심 투자 테마로 부상. 제품보다 데이터와 플랫폼 가치 중시
4. **중국·인도 Cross-border 확대:** 생산·임상 역량과 소비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중국과 인도가 M&A 주역으로 부상

2026년 하반기 M&A Trend



헬스케어 서비스

- 여성 건강(난임, 폐경 후 건강관리 등), GLP-1(비만치료제), 예방의료 등 컨슈머 의료 분야 투자 확대
- 환자 접근성·예방·개인맞춤형 의료 수요 증가에 따라 'Care-anywhere' 플랫폼 부상



제약 및 생명공학

- 특허 만료 대응을 위한 파이프라인 확보 M&A 지속
- 임상 데이터와 검증된 기술 기반 Bolt-on 인수¹ 확대. 종양학, 대사질환, 백신, 방사성의약품 분야 거래 활발
- 중국의 바이오 혁신, 글로벌 확산 지속
 - 임상 속도와 비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이 글로벌 파이프라인 주요 공급처로 부상 → 인수보다는 라이선스, 공동 개발, NewCo² 구조 활용
 - 중국 회사는 자국 시장 내 판매 권리를 유지하고, 글로벌 제약사는 해외 권리를 확보하는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 확산
- 인도는 소비자 수요 확대와 생산·임상 역량 강화에 힘입어 글로벌 헬스케어 핵심 시장으로 부상
 - 'China+1'³ 전략과 기술 기반 의료 확산을 바탕으로 M&A 시장 내 인도의 위상 강화

1. Bolt-on 인수: 동종업계 기업을 인수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전후방 사업체를 인수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
2. NewCo: 기존 기업의 특정 자산이나 사업부를 분사(spin-off)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 주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외부 자금을 유치해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전략으로 활용
3. China+1: 중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중국 이외의 국가로 투자를 늘리는 전략

자료: PwC analysis

05

산업재·자동차



05. 산업재·자동차: 2026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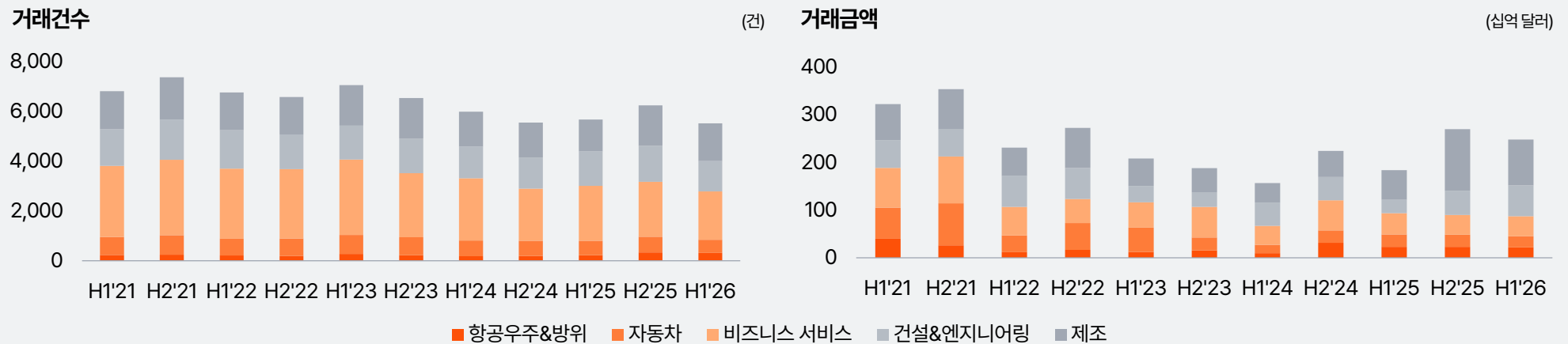
■ '26년 상반기 글로벌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는 5,519건(YoY -3%), 거래금액은 2,480억 달러(YoY +35%)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건수는 상대적으로 견조, 거래금액 증가율은 다소 부진
-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안정성이 주요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기존사업과의 시너지, ▲규모의 경제, ▲핵심 전략기술 확보가 주요 거래 동인으로 작용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금액 대비 건설&엔지니어링(+128%), 제조(+55%) 증가 vs. 항공우주&방위(-5%), Biz서비스(-5%), 자동차(-11%) 감소

- **건설&엔지니어링:**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규모의 경제 실현 목적 거래 진행
 - 북미 건축자재 유통기업 QXO - 단열재 유통업체 탑빌드(TopBuild) 인수(170억 달러) → 북미 단열재 및 방수 부문 1위의 거대 건축자재 기업으로 도약
 - 일본의 스미토모 임업(Sumitomo Forestry)은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트리 포인트 홈즈(Tri Pointe Homes)를 45억 달러에 인수.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 확장을 넘어 나무의 조달, 가공, 주택 건설,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우드 사이클(Wood Cycle)' 가치 사슬 구축이 목표
- **제조:** 규모 확대, 첨단 제조기술 및 산업 자동화 역량 확보에 집중
 - 핀란드의 승강기 기업 코네(Kone Oyj) - 독일의 티케이엘리베이터(TKE)를 약 344억 달러에 인수하며, 세계 1위 승강기 기업이 탄생
 - 미국 산업용 장비 제조업체 아메텍(Ametek) - 인디코어(Indicor) 계측사업 인수(50억 달러)를 통해 정밀 측정·자동화 기술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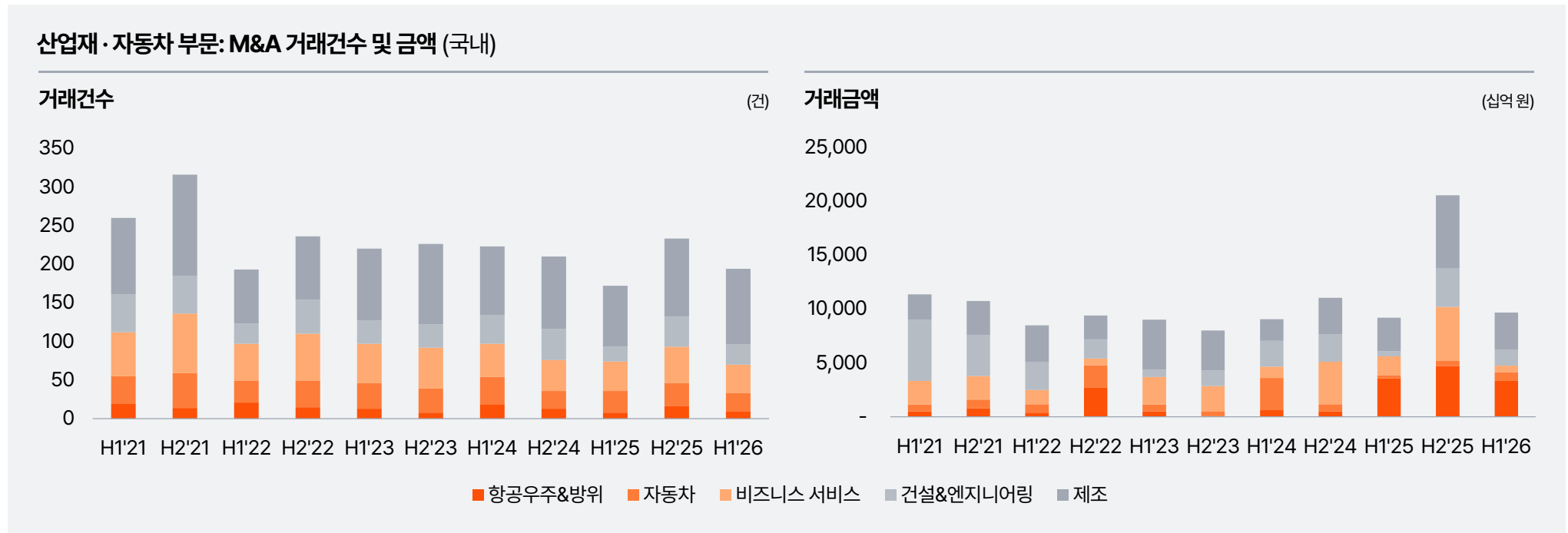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 및 금액 (Global)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5. 산업재·자동차: 2026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6년 상반기 국내 산업재·자동차 부문 M&A 거래건수는 194건(YoY +13%), 거래금액은 9조 6,582억 원(YoY +5%)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0%, +32%) 대비 거래금액 증가율이 저조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금액 대비 건설&엔지니어링(+212%), 자동차(+195%), 제조(+11%) 증가 vs. 항공우주&방위(-7%), Biz서비스(-65%) 감소
 - 건설&엔지니어링: SK그룹 내 포트폴리오 재편 영향으로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했으나, 이를 업황 개선에 따른 시장 회복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적
 - SK(주) - SK에코플랜트지분 4.5% 추가 인수(4천억 원)
 - SK에코플랜트 - SK에코엔지니어링 지분 43% 추가 인수(3,620억 원)하며, 100% 자회사 편입
 - 자동차: KG그룹은 중고차 플랫폼 K-Car를 5,500억원에 인수. 이를 통해 자동차 생산(KG모빌리티)에서 유통(K-Car) 까지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
 - 항공우주&방위: 전년도 대형 거래의 기저효과로 거래금액은 감소했으나, 글로벌 국방비 확대와 K-방산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투자 수요는 여전히 견조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5. 산업재 및 자동차: 2026년 하반기 M&A Outlook

💡 M&A 주요 테마

▲AI·자동화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이 산업재 M&A의 핵심 동인

- 1. AI 인프라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전력망, 전력설비, 냉각·에너지관리 등 AI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투자 확대 → 기술기업을 넘어 엔지니어링 및 건설,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투자 기회 창출
- 2. 자동화·디지털 역량 확보:** 인력 부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로봇, 센서, 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서비스 인수 확대
- 3. 공급망·포트폴리오 재편:** 지정학·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생산 거점과 공급망 재편, 비핵심 자산 매각

2026년 하반기 M&A Trend



항공우주·방위

- 국방 예산 확대와 군 현대화 정책에 따라 방산 기술, 첨단 제조, 군수 부품 등 즉시 생산·운용이 가능한 자산 확보 목적의 M&A
- AI·자율 시스템·디지털 전장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방산 소프트웨어, 지휘통제(C4ISR), 사이버보안 등 차세대 국방 기술 분야 투자
- 신규 항공기 공급이 제한되며 애프터마켓¹ 중심의 안정적 수익 자산 인기
- 우주 산업 M&A는 선별적 진행 예상. 핵심은 규모의 경제 확보

1. 항공 애프터마켓(Aircraft Aftermarket): 항공기 인도 후 발생하는 정비(MRO), 부품 교체, 수리, 기술 지원 등 전반적인 서비스 시장



건설/엔지니어링

- 인프라 중심의 '투 트랙' 시장 형성
 - 에너지, 디지털, 공공 인프라 연계 자산은 강한 투자 수요
 - 금리 민감도가 높은 상업용·주거용 건설 부문은 둔화
- 인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부상 → 노동력 부족과 프로젝트 복잡성 증가로 자동화·디지털 역량을 보유한 기업 선호
- PE는 안정적인 반복 수익을 창출하는 엔지니어링·유지보수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투자. 반면, 건설 부문에는 엄격한 투자 기준 적용



자동차

- 수요 둔화, 공급 과잉, 지역별 격차 확대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재편
 - 지역별 생산체계 및 공급망 재편, 비핵심 자산 매각 진행
 - 자산 매각·분리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성장 투자 자원 확보
- EV 전환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
 - EV·SDV·자율주행·배터리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투자
 - 대규모 M&A보다 지분투자 및 JV 중심의 협력 강화



제조/기계

- AI 인프라 및 자동화 관련 M&A 확대
 - AI 인프라 확대로 냉각·전력·제어시스템 등 관련 자산 수요 확대
 - 생산성 제고와 인력 의존도 축소를 위해, 로봇, 산업용 소프트웨어, 센서·검사 기술 등 '피지컬 AI' 기반 자산에 주목
- 포트폴리오 재편 및 지역화
 -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성장 투자 자원 확보
 - 관세 리스크 완화를 위해 생산거점 현지화 및 공급망 재편

자료: PwC analysis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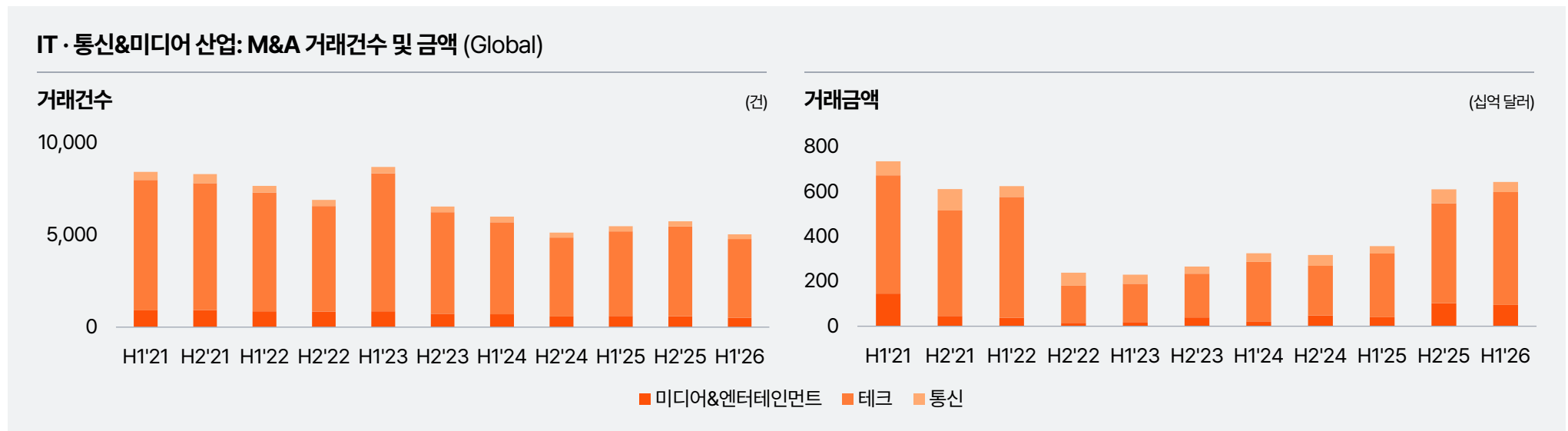
IT·통신&미디어



06. IT·통신&미디어: 2026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 '26년 상반기 글로벌 IT·통신&미디어(TMT) 부문 M&A 거래건수는 5,026건(YoY -8%), 거래금액은 6,440억 달러(YoY +80%)
 - 메가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0%, +42%) 대비 거래금액 크게 증가. '22년 하반기 이후 거래금액 꾸준한 회복세
 - AI가 주도하는 기술혁신이 M&A 시장을 견인하며 TMT 업종이 글로벌 M&A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
 - 총 거래금액 내 TMT 비중: '21년 26% → '23년 19% → '25년 27% → '26.1H 32%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미디어&엔터테인먼트(+133%), Tech(+78%), 통신(+39%) 증가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Pershing Square) - 세계 최대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Universal Music Group)에 640억 달러 규모 인수 제안¹
 - Tech: AI 산업 경쟁이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초대형 투자, 전략적 제휴 및 인수 거래가 활발히 전개
 - Open AI - 1,1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 아마존(Amazon) 500억 + 소프트뱅크(Softbank) 300억 + 엔비디아(NVIDIA) 300억
 - 엔트로픽(Anthropic) - 아마존으로부터 250억 달러 투자 유치 및 향후 10년간 AWS(아마존 웹 서비스) 사용에 합의
 - 통신: 아마존 - 저궤도 위성 통신사 글로벌스타(Globalstar)를 116억 달러에 인수 → 위성 인터넷 사업 확대 및 스페이스X와 경쟁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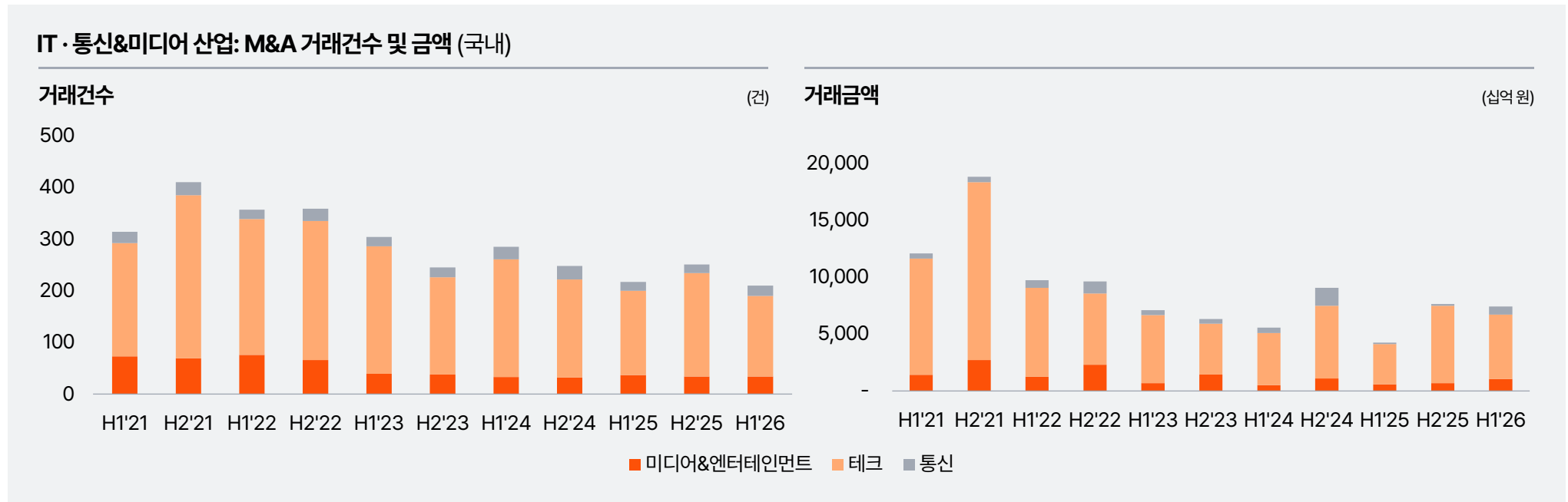
¹ '26년 5월, 유니버설 뮤직그룹은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인수 제안 거절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6. IT·통신&미디어: 2026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 '26년 상반기 국내 IT·통신&미디어 M&A 거래건수는 210건(YoY -3%), 거래금액은 7조 4,367억 원(YoY +75%)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0%, +32%) 대비 거래금액이 큰 폭 증가
 - 글로벌 IT·통신&미디어 시장(각각 YoY -8%, +80%)의 흐름과 유사하게,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한국 시장에서도 본격화되는 양상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통신(+461%), 미디어&엔터테인먼트(+81%), Tech(+60%) 등 전 영역에서 증가
 - 통신: 거래건수(YoY +18%) 및 금액(YoY +461%) 동반 증가하였으나, 의미 있는 대형 거래가 부재해 시장 전반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미디어&엔터: 콘텐츠·광고 자산 중심의 중소형 거래가 주를 이루며, AI 주도 성장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재편 및 사업 구조조정 목적의 거래가 우세
 - Tech: AI·디지털 전환 수혜가 기대되는 플랫폼·소프트웨어·핀테크 자산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대형 거래와 해외 투자자 참여가 시장 성장을 견인
 - 삼성SDS - AI 인프라 및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KKR 대상 전환사채 발행(1조 2천억 원)
 - LAAA인베스트먼트(일본 '라인야후' 계열사) - 카카오게임즈 지분 일부(40% 이상)를 약 3천억 규모에 인수



자료: LSEG and PwC analysis

06. IT·통신&미디어: 2026년 하반기 M&A Outlook

💡 M&A 주요 테마

AI 패권 경쟁이 자본 배분의 기준을 변화시키며, ▲AI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IP¹ 등 차별화된 성장 자산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

1. **AI 인프라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반도체·네트워크 등 AI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거래
2. **콘텐츠 IP·데이터 자산 가치 부각:** 프리미엄 콘텐츠 IP, 데이터 등 무형자산 확보 경쟁 심화
3. **소프트웨어 투자 양극화:** AI 확산으로 전통적 범용 SW 기업의 투자 매력도 약화 vs. AI 네이티브·데이터 경쟁력을 보유한 플랫폼으로 자본 집중

1. 콘텐츠 IP: 영화·드라마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미디어 업계에서 말하는 '콘텐츠 IP'는 단순한 저작권을 넘어, 영화·드라마·게임·캐릭터·웹툰 등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원천 자산

2026년 하반기 M&A Trend



-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전력관리·광통신·네트워크 등 AI 핵심 인프라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지속
- 반면,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수익모델의 지속가능성과 AI 대응 역량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한 투자 기준 적용
- 특히, 사모자본은 AI 전환 리스크, 가격 압박, 자동화 영향 등을 고려해 전통적인 SW 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IT 서비스·반도체·장비 등 AI 구현과 확산을 지원하는 기술 스택 전반으로 투자 확대



- 통신사는 인프라 분리와 JV 활용을 통해 자본을 확보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
- 광통신망(Fibre) 시장이 네트워크 확장 중심의 성장 단계에서 운영 효율화 단계로 전환 → 통합형 M&A 가속화
-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제공자를 넘어 AI·클라우드 운영을 지원하는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으로 전환 추진



- 콘텐츠 라이브러리², 프리미엄 브랜드(디즈니·HBO 등), 인기 콘텐츠 IP(마블, 스타워즈 등 시리즈물)가 미디어 부문 핵심 자산으로 재부상
 - 투자자들은 단순 가입자 수보다 IP를 스트리밍³·게임·광고·커머스 등 다양한 채널로 확장해 수익화 할 수 있는 역량에 주목
- 게임 산업은 이용자 체류시간 및 참여도를 놓고 스트리밍 서비스와 경쟁하는 구조로 전환되면서, 대형 미디어 기업의 진출 확대
 - 미디어·게임·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 내 광고, 크리에이터 플랫폼, 결제 시스템, 디지털 커머스 등 인접 생태계에 대한 투자 매력 증대

1. 콘텐츠 라이브러리: 영화·드라마 수천 편을 보유한 기업

2. 스트리밍: 인터넷을 통해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미디어를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재생하여 감상하는 기술

자료: PwC analysis

Business Contacts

소비재 · Life Cycle

홍성표 파트너
sungpyo.hong@pwc.com

심양규 파트너
yang-kyu.shim@pwc.com

이준식 Partner
jun-sic_1.lee@pwc.com

산업재 · 자동차

최창윤 파트너
chang-yoon.choi@pwc.com

홍성표 파트너
sungpyo.hong@pwc.com

조한준 파트너
han-jun.cho@pwc.com

박기남 파트너
kee-nam.park@pwc.com

홍승환 파트너
seunghwan.hong@pwc.com

바이오·헬스케어

홍준혁 파트너
joonhyuk.hong@pwc.com

홍승환 파트너
seunghwan.hong@pwc.com

우주/방산

홍석형 파트너
seok-hyoung.hong@pwc.com

문상철 파트너
sang-chul_1.moon@pwc.com

부동산

이상민 파트너
sangmin.lee@pwc.com

박성진 파트너
sung-jin.park@pwc.com

이철민 파트너
chul-min.lee@pwc.com

IT·통신&미디어

최창대 파트너
chang-dae.choi@pwc.com

이창조 파트너
chang-jo.lee@pwc.com

유상문 파트너
sang-moon.yoo@pwc.com

건설·엔지니어링

최창윤 파트너
chang-yoon.choi@pwc.com

손병구 파트너
byounggoo.sohn@pwc.com

금융

김기은 파트너
gee-eun.kim@pwc.com

홍영관 파트너
young-kwan.hong@pwc.com

엔터테인먼트(게임)

김 진 파트너
jin_4.kim@pwc.com

채호형 파트너
hohyung.chae@pwc.com

김홍동 파트너
hong-dong.kim@pwc.com

에너지·유틸리티

서용태 파트너
yong-tae.seo@pwc.com

한정탁 파트너
jungtak.han@pwc.com

운송·물류

최창대 파트너
chang-dae.choi@pwc.com

박치홍 파트너
chihong.park@pwc.com

강대호 파트너
dae-ho.x.kang@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안정효 선임연구원

jeonghyo.ahn@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hyojin.h.kim@pwc.com

강수정 연구원

sujeong.j.kang@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08W-RP-102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